



**6 Interview**  
**자랑스러운 동국인**  
**MBC 논설위원실장 황헌 동문**  
 MBC 논설위원실장 황헌 동문을 만나 그의 학창시절과 방송기자로서의 삶과 철학에 대해 인터뷰했다.

# 동대신문

**금주일언** 한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숫다파타 제1장 사품 117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6호 2010년 (불기 2554년) 9월 13일 월요일

Cover Story 사범대, CPA 좋은 성과, 어떻게 준비했나

##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 낸 ‘결실’

### 관련 학과, 부서 등에 정책적 지원 집중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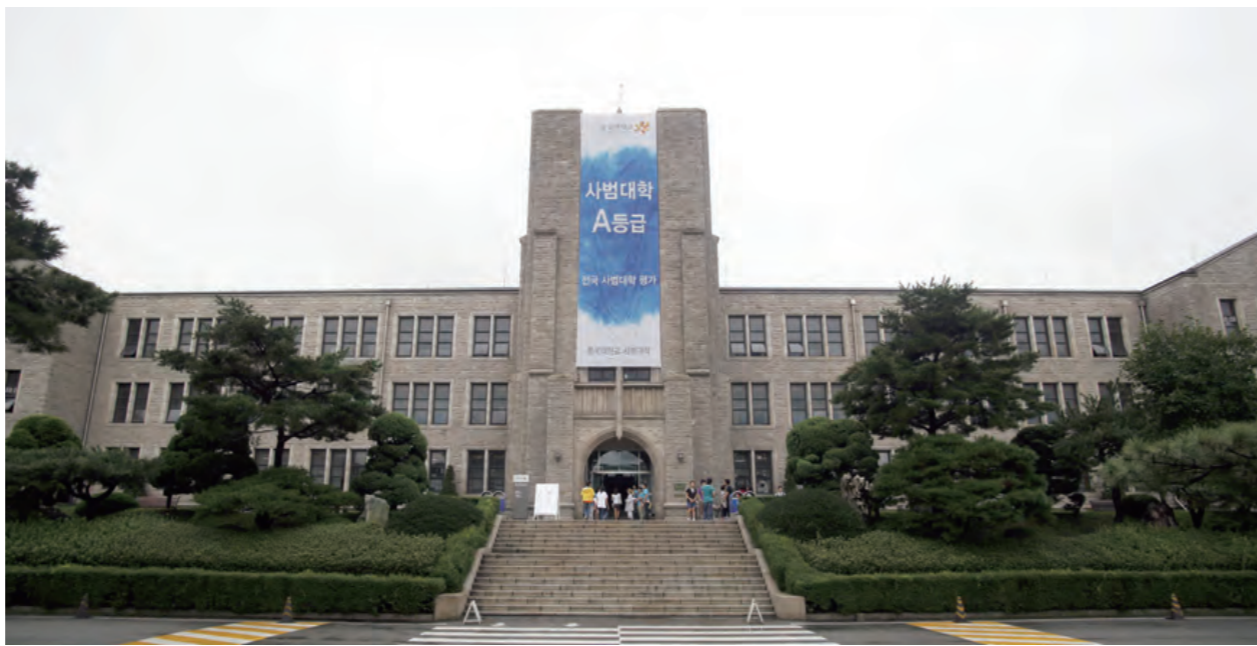
최근 우리대학에 연이은 경사가 터져 학내구성원 모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달 27일 우리대학 사범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 등급을 받는데 이어, 지난 2일 우리대학의 공인회계사시험(CPA) 최종 합격자가 역대 최대인 총 36명인 것으로 집계(集計)됐다.

사범대학 학부과정 평가에서는 전국 45개 대학 중 우리대학을 포함해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8곳만이 A등급을 받았다.

#### 구성원이 함께 이뤄낸 A등급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과 교사양성 특별과정 및 교장양성과정 설치 등 다양한 특혜(特惠)를 얻게 된다. 반대로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대학은 1년 이내 재평가권을 받아 평가 점수가 B등급으로 오르지 못하면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의 20%를 줄여야한다. 그만큼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우리대학 사범대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였다. 그 때문에 사범대 구성원은 몇 달동안 밤샘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평가 준비에 임했다. 이해는 사범대학장은 “각 학과별로 2009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사범대 전체가 준비한 5~6개월 동안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웠다”고 털어놨다.

결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경주캠퍼스 사범교육대와의 협력해 평가 자료준비를 했다. 이해는 학장은 “경주캠퍼스와 함께 자료 공유, 평가요



▲우리대학은 지난27일 발표된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고려대, 이화여대와 함께 A등급을 받았다.

소 해석에 대한 논의 등을 준비하느라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동고동락(同苦同樂)했다”고 밝혔다. 평가 보고서 제출이 임박해 오자 우리대학 사범대 학사운영실 직원들은 더욱더 바빠졌다. 평가보고서 준비팀이 꾸려져있는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대학은 학사운영실 직원이 그 모든 일을 담당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학사운영실 만족도 꼴찌’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범대 내부적인 노력뿐 아니라 학과관 내부 보수공사와 교수 초빙 등 학교 측의 지원도 이번 ‘교원양성기관 평가’ A등급에 일조(一助)했다.

이해는 학장은 “어느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닌 교수, 학생, 학사운영실 직원, 학교 모두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였다”고 구성원 모두 노력한 결과임을 강조(強調)했다.

#### CPA 역대 최대합격자의 비밀

사범대의 A등급 평가에 이어 공인회계사 고시반도 지난해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합격자를 배출해 학내구성원들을 기쁘게 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많은 학내 구성원들은 “괄목(刮目)할만한 성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이상철 공인회계사 고시반 전담 교수(회계)는 “그동안 1차 합격자 순위에 비해 2차 합격자 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번 최종합격자 8등이 반짝 효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차 합격자 순위가 07년도 10등, 08년도 10등, 09년도 9등, 10년도 9등이었던 점을 봐도 알 수 있듯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최종합격자 수가 증가한 데는 학교의 지원과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일조했다. 그동안 1차합격자에 한해서만 지급됐

던 장학금이 현재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되기 때문이다. 고시반 내 소모임 ‘홀인원’ 또한 최종합격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원호(정의10졸)씨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데 학교 측의 지원과 고시반 내 소모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인회계사 준비와 관련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준 교수들의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서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의 노고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내구성원들은 사범대와 CPA 고시반의 이같은 성과가 학과와 단과대 차원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이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나요?

학생 여러분! 바쁘지요? 대학만 가면 다 될 것 같고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대학에 오니 그렇지도 않지요.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고 신나게 놀기도 하면서 젊음을 만끽하고 싶는데 뜻대로 잘 안 되지요. 요즘 학생 여러분은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높은 학점과 영어 성적, 다양한 자격증 등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요. 그런데도 취직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요. 그런데 학생 여러분! 회사 또한 고민이 많아요. 좋은 학벌과 높은 학점 등 훌륭한 조건을 갖춘 학생을 채용하지만, 그런 사람이 꼭 유능한 일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람은 똑똑한데 회사에 충실하지 않거나, 실무능력은 있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 회사도 좋은 인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유수스님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학점, 영어 성적, 자격증 같은 조건을 갖추면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고,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요. 이러한 외형적 조건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쉽게 취직이 되거나 회사 생활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요즘 회사의 인재상도 변화하는 추세라고 해요. 예전에는 구직자의 학벌, 학점, 지식 등을 중요하게 봤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가치관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요. 바로 인격의 완성도가 높은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이랍니다.

수행이란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요. 배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바다가 온갖 오물을 정화하듯이, 대지가 온갖 것을 수용하듯이 자신을 넓고 깊은 마음의 소유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어떤 외형적 조건보다 이런 자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이지요. 인격적 성장 없이 취직에 필요한 공부에만 매달리는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 행복한 삶이 오지 않아요. 자신만의 꿈을 갖고 수행에 바탕을 둔 인격 도야에 힘쓴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가요?

#### 대학언론 최초 ‘동국인’ 앱 출시



대학미디어팀이 아이폰 ‘동국인’ 앱(Application)을 대학언론 최초(最初)로 개발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모바일 미디어 포털 ‘동국인’은 아이폰 전용(專用)으로 동대신문과 DUBS에서 업데이트되는 기사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 각종 학교 소식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옆에 있는 QR 코드를 아이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동국인 앱스토어로 바로 이동해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금주의 동대신문

7 [ 기획 ] 학과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9 [ 도서 ] 화제의 책 - 역주조선불교통사 12 [ 문화 ] 학생식당 탐방

다음주는 수습기자 선발관계로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10월 4일자로 발간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1년만에 기자 다 됐어요!

## 기자가 되고픈 새내기들! 동대신문사가 환영합니다



- 지원자격 10학년
- 모집대상 취재기자, 사진기자, 편집기자
- 원서마감 9월 16일(목) 오후 5시
- 면접일시 9월 16일(목) 오후 6시
- 문의 홈페이지(www.dgupress.com)의 게시판 또는 02)2260-3491~2
- 혜택 소정의 장학금 및 활동비, 신문사 내 PC제공

동대신문사



# 조선불교통사 역주사업 8년만에 완료

## 완역 전집 출간으로 불교학 연구에 활력소 될 듯



우리대학 출판부가 지난 10일 '역주 조선불교통사'를 출간(출판)했다. '역주 조선불교통사'는 한국 불교 최초의 종합역사서이자 불교 백과사전인 상현(尙玄) 아능화의 '조선불교통사'를 한글로 완역한 책이다.

'조선불교통사'는 372년부터 1916년까지 1544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사

를 총집결한 책이다. 이 책에는 불교교리와 한국 전통사찰의 내력, 선사들의 저작물이 담겨 있다.

하지만 '조선불교통사'는 순 한문으로 기술(記述)되어 자료 활용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우리대학 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 2002년 역주편집위원회를 구성

해 역주(譯註) 사업을 진행했다. 역주 편집위원회는 법산스님(선학과 교수)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효탄스님(조계종 문화부장), 김진무 교수(불교문화연구원), 한상길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연구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다수의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역주사업은 같은 해 한국연구재단의 국학분야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선불교통사 역주 사업은 금석문과 불교문헌자료로 이뤄진 문장의 번역과 주석(註釋), 해제연구에 5년이 걸렸으며, 오타자 교정과 통일문법(調

文), 편집 등의 작업을 포함해 총 8년에 걸친 연구 끝에 완료됐다. 이번에 조선불교통사의 완역된 전집이 출간됨으로써 불교학 발전의 일대 전기(轉機)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완역된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은 총 상권 2권, 중권 1권, 하권 3권과 원문 교감 본 개정판 1권, 색인 집 1권 등 총 8권, 6천 여쪽 분량이다.

이 가운데 상권은 '불화시처(佛化時處)'이며,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불교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퍼지는 과정을 통사적으로 서술했다.

또한 중권은 '삼보원류(三寶源流)'편으로 불교의 탄생과 전파내용을 소개했다.

마지막 하권은 3권으로 구성됐으며, '이백품제(二百品題)'편으로 불교 사상과 문화예술, 인물, 사적 등을 203개 항목의 이야기와 단편소설 2편을 통해 소개한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 바이오대 박정극 학장 장학기금 약정

## 퇴임까지 남은 6년간 매달 100만원씩 총 2400만원

우리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이하 바이오대)의 박정극 학장이 장학기금을 모아 의생명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달(傳達)할 예정이다.

박정극 학장은 이번 달부터 급여(給與) 중 매달 100만원씩을 모아 1년이 되는 내년 8월, 의생명공학과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

달할 계획이다. 이 장학기금은 박정극 학장이 퇴임(退任)할 때까지 장학기금을 모아 의생명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달(傳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운동규 바이오대 학사운영실장은 "꾸준히 금액을 모아 매 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만큼 더욱 뜻 깊은 장학기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과대, 日 고치대 인문학부와 학생교류

## '안락국태자경변상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우리대학 문과대와 일본 고치(高知)대학교 인문학부가 학생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8월 25일 고치대학 인문학부 학부장실

에서 협정서 교환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정서 교환식에는 우리대학 김상현(사학과) 교수, 서인범(사학과) 교수, 김상일(국어국문학과) 교수와 고치대학 교육학부 장 엔도 다카토시 교수와 대외협

력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대학 문과대학과 고치대학 인문학부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3명의 학부생을 교환(交換)하게 된다. 또 우리대학 문과대 학 교육학부와 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총 6명의 문과대 학생이 고치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할 수 있게 됐다.

# 레바논국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아랍권 대학과 최초의 협정 ... 지난 7일 협정

우리대학이 지난 7일, 레바논 국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締結)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오영교 총장, 레바논 국립대학 총장과 우리대학의 국제화추진단장, 사회과학대학장, 법과대학장 등이 참석(參席)했다.

오영교 총장은 "이번에 레바논 국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함으로써 우리대학은 아랍권 학교와는 처음으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레바논 국립대학은 1951년에 설립된 레바논 내 유일한 국립종합 대학이다. 레바논국립대학은 총 17개 학부를 가지고 있으며, 법학과 정치학 분야가 특히 강세(強勢)인 학교다.

# 생협 학생위, 한가위 한마당 행사 열려

## 식혜 등 전통음식 체험과 경품행사 이뤄질 예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음식 체험과 경품행사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전통음식 체험은 오는 16일 12시에 상록원과 그루터기 식당에서

진행되며 식혜와 떡을 무료로 시식(試食)할 수 있다. 또한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상록원, 보리수, 그루터기 등 매점에서 응모권을 받아 진행된다. 응모권 추첨은 16일 2시에 팔도에서 실시(實施)한다.

# 2010 홈커밍데이 다음달 2일 개최

2010 홈커밍데이 행사가 다음달 2일 오후 4시30분부터 각 단과대별 대형 강의실과 만해광장에서 개최된다. 변화하는 학교에 대한 이해 증진(增進) 및 학교와 동문 사이의 협력강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동문과 발전기금 기부자 등 총 2

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먼저 1부 행사인 '대학(원)별 만남의 장'에선 각 학교별 자체 행사가 단과대별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2부 행사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는 재미와 화합(和合)에 초점을 맞춰 편안한 분위기의 가든파티가 열린다. 2부 행사엔 축하공연과 뮤지컬전공 재학생들의 뮤지컬 갈라쇼, 본관 옥상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대운동장 앞과 중문, 후문엔 Welcome Zone이 설치돼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하는 선배들을 후배들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 손창완 동문, 경찰대학장에



손창완 동문(경찰행정 78졸)이 지난 9일 제35대 경찰대학장으로 취임했다. 전남 장성출신인 손 동문은 우리대학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군 특채(경위)로 경찰에 임용돼, 서울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 김일중 교수, 자원경제학회부회장



김일중(국제통상학·국제화추진단장)교수가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동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1차 총회에서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 이은혜 교수, 첫 솔로 콘서트



이은혜(연극학부)교수가 오는 14일 저녁 8시, 충무아트홀에서 첫 솔로 콘서트 'Memories in Broadway'를 개최한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미스 사이공' 등의 주연으로 활약했던 이 교수는 이번 콘서트에서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다양한 뮤지컬 넘버와 팝페라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 동악로에서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나눔 문화

9월을 맞아 학내에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바로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 주최한 '2010 2학기 개강 맞이 책 베품시장' (이하 베품시장)이다. 베품시장은 지난 8, 9일 이틀 동안 팔정도에서 진행됐다.

학복위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학생들에게 총 673권의 중고(中古) 도서를 받았다. 그 중 337권을 팔았고, 판매 수익은 총 150만원에 달한다. 이중 10여만 원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베품시장을 주최(主催)한 학복위의

신동우 위원장은 "이번 베품시장에서 교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나눔 문화가 정착(定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품시장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다. 베품시장이 진행된 첫 날인 8일에는 줄을 선 학생들이 팔정도를 가득 메울 정도로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뤘다. 원가가 33,000원에 달하는 '행정법 강의'를 단돈 백 원에 사간 강현석(사회학04)학생은 "헌

책방에서도 3~4천원은 줘야 살 수 있는 책을 이렇게 백 원에 사게 돼 황재(橫財)한 것 같다"며 "학생들 사이에 이번 베품시장 같은 나눔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세권의 책을 무료로 기증한 김한결(철학09)학생은 "좋은 일에 쓰인다는 말을 듣고 무료로 책을 기증하게 됐다"며 "후배들도 이런 행사를 통해 나눔 문화의 중요성을 절감(切感)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진행된 베품시장의 핵심은 바로 '학생간의 나눔 문화 활성화'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깊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동악 곳곳에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

# ▶ 2면에서 계속

손세호(6만원), 김학원(6만원), 김정연(6만원), 민준석(6만원), 천형준(6만원), 조진열(6만원), 정운재(6만원), 탁상민(6만원), 최우석(6만원), 선우진(6만원), 이상익(6만원), 박재준(6만원), 강선희(6만원), 정영상(6만원), 황광자(6만원), 인성스님(6만원), 이재명(6만원), 권혁근(6만원), 최경숙(6만원), 이병재(6만원), 이태희(6만원), 박창근(6만원), 한경미(6만원), 신준성(6만원), 신용재(6만원), 김기택(6만원), 허준(6만원), 현대회종합센터(6만원), 김영민(5만원), 차교성(5만원), 이승진(5만원), 김호산(5만원), 정현스님(5만원), 신성식(5만원), 김기택(5만원), 홍돌이(5만원), 박연이(5만원), 김규영(5만원), 최우성(5만원), 최동선(5만원), 이상명(5만원), 김경남(4만5천원), 김부봉(4만원), 강기영(4만원), 김연희(4만원), 김미경(4만원), 박희상(4만원), 이원재(4만원), 임중빈(4만원), 구경덕(4만원), 최현익(4만원), 이상득(4만원), 김윤현(4만원), 김경표(4만원), 윤현권(4만원), 허성(4만원), 한주식(4만원), 장영우(4만원), 김춘식(4만원), 이종대(4만원), 한만수(4만원), 김경웅(4만원), 이원규(4만원), 한형인(4만원), 이승남(4만원), 윤준호(4만원), 이만희(4만원), 김금용(4만원), 차흥기(4만원), 박해경(4만원), 장원명(4만원), 채명식(4만원), 유임하(4만원), 김주호(4만원), 김상일(4만원), 정환섭(4만원),

이광우(4만원), 이효선(4만원), 우철희(4만원), 김용래(4만원), 신지형(4만원), 고학배(4만원), 강영진(4만원), 강희문(4만원), 임지현(4만원), 김상우(4만원), 권원대(4만원), 김영희(4만원), 하기복(4만원), 김인홍(4만원), 이미애(4만원), 한영관(4만원), 오원옥(4만원), 김철용(4만원), 정도진(4만원), 이종하(4만원), 박형제(4만원), 이선진(4만원), 김대성(4만원), 김용주(4만원), 서재덕(4만원), 박지영(4만원), 김길자(4만원), 박준재(4만원), 윤해은(4만원), 오원석(4만원), 송호석(4만원), 김태형(4만원), 이상익(4만원), 박광현(4만원), 정한국(4만원), 김정은(4만원), 김명숙(4만원), 정포성(4만원), 고철환(4만원), 김혜경(4만원), 이현규(4만원), 민은기(4만원), 김현태(4만원), 이시연(4만원), 김연숙(4만원), 선호스님(4만원), 현담스님(4만원), 강정자(4만원), 권근주(4만원), 윤옥송(4만원), 김해동(4만원), 이정성(4만원), 지승림(4만원), 김기수(4만원), 신창균(4만원), 임정임(4만원), 이천경(4만원), 양명숙(4만원), 이태형(4만원), 도안스님(4만원), 김해동(4만원), 지경숙(4만원), 정진도(4만원), 오경량(4만원), 조은제(4만원), 김명자(4만원), 전귀열(4만원), 박보경(4만원), 김남숙(4만원), 권혁도(4만원), 이순남(4만원), 신은희(4만원), 조금순(4만원), 이상식(4만원), 윤명화(4만원), 김명숙(4만원), 강중구(4만원), 하경천(4만원), 김광자(4만원), 조병래(4만원), 김덕만(4만원), 류지묵(4만원), 서은하(4만원), 신경숙(4만원),

신동주(4만원), 원원희(4만원), 서무영(4만원), 송양희(4만원), 강기호(4만원), 문순이(4만원), 박진수(3만원), 왕선자(3만원), 한경남(3만원), 효수스님(3만원), 한순옥(3만원), 서말순(3만원), 김영국(2만원), 김성규(2만원), 노동영(2만원), 탄성스님(2만원), 임병수(2만원), 이혜선(2만원), 구한도(2만원), 이성연(2만원), 강두찬(2만원), 김보하(2만원), 김민섭(2만원), 정성진(2만원), 권종진(2만원), 윤종환(2만원), 김경영(2만원), 김명수(2만원), 서정운(2만원), 김규현(2만원), 김건호(2만원), 이라유(2만원), 김주호(2만원), 김여진(2만원), 조태수(2만원), 최부식(2만원), 묘진스님(2만원), 이승규(2만원), 이정덕(2만원), 안현정(2만원), 최보영(2만원), 임종민(2만원), 민병기(2만원), 박태환(2만원), 홍성우(2만원), 서동일(2만원), 이상현(2만원), 이나영(2만원), 김철균(2만원), 김주익(2만원), 박주연(2만원), 이윤수(2만원), 신영훈(2만원), 김홍희(2만원), 김경자(2만원), 최준혁(2만원), 박기림(2만원), 남원식(2만원), 김기홍(2만원), 배성원(2만원), 조진권(2만원), 박성필(2만원), 안홍철(2만원), 조승혁(2만원), 도담스님(2만원), 정우경(2만원), 최아영(2만원), 전용택(2만원), 장계식(2만원), 이수창(2만원), 이정훈(2만원), 김태성(2만원), 김덕희(2만원), 이성민(2만원), 이혜주(2만원), 이종화(2만원), 유정숙(2만원), 문영우(2만원), 김정자(2만원), 황민수(2만원), 백봉명(2만원), 이현옥(2만원), 김옥금(2만원), 김영일

(2만원), 홍인선(2만원), 임정금(2만원), 김정일(2만원), 이경옥(2만원), 최철환(2만원), 임숙이(2만원), 백라관(2만원), 강경숙(2만원), 심규홍(2만원), 채운미(2만원), 박영수(2만원), 해공스님(2만원), 문희정(2만원), 조은경(2만원), 김정희(2만원), 문희경(2만원), 강준숙(2만원), 최문정(2만원), 최우혁(2만원), 조한제(2만원), 정창수(2만원), 박선옥(2만원), 강경자(2만원), 최해철(2만원), 이남희(2만원), 이진균(2만원), 손상국(2만원), 류경자(2만원), 박순자(2만원), 허진(2만원), 김한수(2만원), 이영식(2만원), 한원영(2만원), 김도연(2만원), 한경운(2만원), 한종수(2만원), 권혁문(2만원), 김현우(2만원), 이미숙(2만원), 최용환(2만원), 임태순(2만원), 권순민(2만원), 박정호(2만원), 강경희(2만원), 박성훈(2만원), 박정훈(2만원), 김선유(2만원), 조현옥(2만원), 김형옥(2만원), 문진성(2만원), 이준자(2만원), 박승휘(2만원), 이상운(2만원), 임규희(2만원), 이상진(2만원), 최태선(2만원), 박동채(2만원), 박애경(2만원), 심진식(2만원), 김지태(2만원), 사희수(2만원), 이옥순(2만원), 김연희(2만원), 이보현(2만원), 박경임(2만원), 김홍아(2만원), 김동영(2만원), 무애스님(2만원), 오정길(2만원), 우범한식(김필하)(2만원), 우범한식(김미하)(2만원), 임병호(2만원), 신유정(2만원), 박종우(2만원), 이미옥(2만원), 정진도(2만원), 김명길(2만원), 김지태(2만원), 사희수(2만원), 이옥순(2만원), 김성순(2만원), 최종재(2만원), 정

희미경(2만원), 김현자(2만원), 기영희(2만원), 기순심(2만원), 박인경(2만원), 김기수(2만원), 김옥순(2만원), 손경자(2만원), 곡진정(2만원), 윤탁기(2만원), 노상현(2만원), 유진수(2만원), 박수진(2만원), 박진우(2만원), 허만진(2만원), 서찬영(2만원), 수민스님(2만원), 신경자(2만원), 김희숙(2만원), 박외정(2만원), 김명숙(2만원), 고매자(2만원), 금점선(2만원), 임계성(1만원), 김현선(1만원), 김기상(1만원), 하창호(1만원), 이기범(1만원), 김정호(1만원), 김지나(1만원), 이종찬(1만원), 이정애(1만원), 박상철(1만원), 박지연(1만원), 권종자(1만원), 김경호(1만원), 김지나(1만원), 이종찬(1만원), 이정애(1만원), 박상철(1만원), 박지연(1만원), 권종자(1만원), 김경호(1만원), 이태훈(1만원), 이상미(1만원), 이상철(1만원), 전표원(1만원), 한기태(1만원), 손영수(1만원), 김옥녀(1만원), 김종원(1만원), 박종훈(1만원), 이재동(1만원), 김현우(1만원), 박종훈(1만원), 김선유(1만원), 조현옥(1만원), 김형옥(1만원), 문진성(1만원), 이준자(1만원), 박승휘(1만원), 이상운(1만원), 임규희(1만원), 이상진(1만원), 최태선(1만원), 박동채(1만원), 박애경(1만원), 심진식(1만원), 김지태(1만원), 사희수(1만원), 이옥순(1만원), 김연희(1만원), 이보현(1만원), 박경임(1만원), 김홍아(1만원), 김동영(1만원), 무애스님(1만원), 오정길(1만원), 우범한식(김필하)(1만원), 우범한식(김미하)(1만원), 임병호(1만원), 신유정(1만원), 박종우(1만원), 이미옥(1만원), 정진도(1만원), 김명길(1만원), 김지태(1만원), 사희수(1만원), 이옥순(1만원), 김성순(1만원), 최종재(1만원), 정

현희(1,000만원), 자유기업원(870만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500만원), 조운철(300만원), 김종원(300만원), 강정구(200만원), 박민희(200만원), 코모도호텔경주(200만원), 고우스님(200만원), 김응기(168만원), 남상민(100만원), 유진덕(100만원), 정희상(100만원), 윤형중(100만원), 박보경(100만원), 진철스님(100만원),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100만원), 김귀우(103만원), 조은(50만원), 윤종원(40만원), 윤병국(40만원), 유재중(40만원), 지명철(40만원), 김은주(30만원), 신하석(30만원), 불교학술원(25만7천원), 양영진(25만원), 박정훈(20만원), 최진식(20만원), 배인국(1만원), 이상미(1만원), 이상철(1만원), 전표원(1만원), 한기태(1만원), 손영수(1만원), 김옥녀(1만원), 김종원(1만원), 박종훈(1만원), 이재동(1만원), 김현우(1만원), 박종훈(1만원), 김선유(1만원), 조현옥(1만원), 김형옥(1만원), 문진성(1만원), 이준자(1만원), 박승휘(1만원), 이상운(1만원), 임규희(1만원), 이상진(1만원), 최태선(1만원), 박동채(1만원), 박애경(1만원), 심진식(1만원), 김지태(1만원), 사희수(1만원), 이옥순(1만원), 김연희(1만원), 이보현(1만원), 박경임(1만원), 김홍아(1만원), 김동영(1만원), 무애스님(1만원), 오정길(1만원), 우범한식(김필하)(1만원), 우범한식(김미하)(1만원), 임병호(1만원), 신유정(1만원), 박종우(1만원), 이미옥(1만원), 정진도(1만원), 김명길(1만원), 김지태(1만원), 사희수(1만원), 이옥순(1만원), 김성순(1만원), 최종재(1만원), 정

# 단위기금

수불스님(5,000만원), 황정수(2,000만원), 정부자(2,000만원), (재)대한불교진흥원(1,000만원), 진제스님(1,000만원), 흥정대학원(1,000만원), 김성래(1,000만원), 혜국스님(1,000만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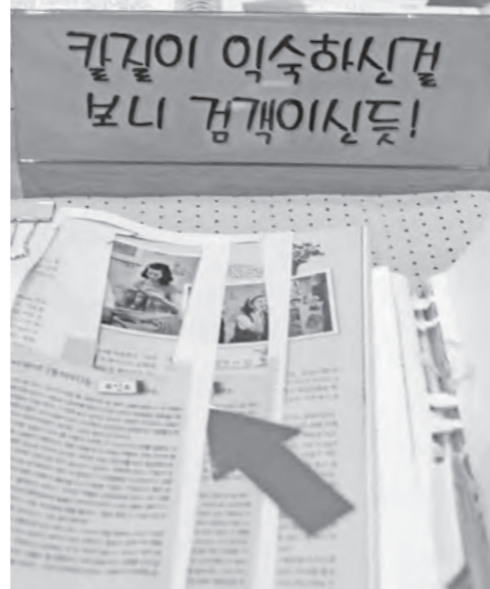
5대 기본 에티켓을 통해 본 도서관 사용 실태

# 찢기고 낙서 가득한 책속에 담긴 우리의 양심

우리대학 도서관이 지난 6일부터 도서관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앞서 도서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모두가 소중하게 공유해야 할 대학의 자산인 책이 함부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곳에는 찢긴 책, 커피를 쏟아 얼룩진 책, 심지어 온갖 낙서로 훼손된 책까지 다양한 흔적이 보였다. 우리가 대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서관 에티켓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자.

가을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며 사람은 책을 통해 지식을 살찌우는 계절인 것이다. 이런 가을을 맞아 우리대학 중앙도서관 '도서관 에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지난 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에티켓 준수 서약서 작성하기 △에티켓 UCC 공모전 △6장의 에티켓 카드를 모아주세요 △오·훼손도서 전시회 등의 네 가지 테마로 이뤄져있다. 이에 관해 중앙도서관 김진호 직원은 "그동안 도서관 사용실태에 관해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중앙도서관은 캠페인 진행을 위해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 다섯 가지를 선정했다.

'소음(騒音)'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중앙도서관의 소음 민원이 만해관 열람실에 비해 자주 제기되는 이유는 건물이 하나로 뭉려있는 구조의 영향이 크다. 때문에 4층에서 얘기하는 자그마한 소리도 1층까지 퍼지곤 한다. 한성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성대 학술정보팀 김설희 과장은 "소음관리시스템은 기계를 이용해 소음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비행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대학에서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비를 조용히 이용하는 사람에게 에티켓 카드를 발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에티켓 카드 6장을 모으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 칼로 도려낸 자국이 있는 훼손 서적(왼쪽) 에티켓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는 이용자들(오른쪽)



### 도서관의 가장 큰 적, 소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 열람실 내, 휴대전화사용은 No!

두 번째 기본 사항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에티켓이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긴 했지만 그에 따른 에티켓은 보편화 되지 못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를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에 대해 윤초롱(지리교육4)양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전화가 와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많은 학생들은 도서관 내의 휴대전화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다. 이에 관해 김진호 직원 "자기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문자도 소용없는 미반납 도서들

세 번째 에티켓 기본 사항은 도서 반납(返納)에 관한 것이다. 반납은 도서관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경우 기본적인 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진호 직원은 "우리대학 도서관에서 제 때 반납되지 않는 도서를 따져보면 10%를 상회(上廻)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학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남궁준(영문1)군은 "수업 발표에 참고하기 위해 책을 빌리려 했는데 해당 도서의 반납이 연체(延滯)되고 있어 빌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장기연체자들에게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독촉(督促)과 연체 날짜에 따라 매겨지는 벌금 등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연체자 명단이 적혀진 게시판에는 게시 글들이 짧게는 두 달부터 길게는 일 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양심의 결여 = 소지품 절도

에티켓 기본 사항의 네 번째는 바로 이용자의 소지품 절도다. 위의 세가지 사항들이 우리사회의 규범이었다면 절도는 명백한 범죄다. 도난사고의 1차 원인은 무조건 범인에게 있다. 그러나 범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CCTV가 있기에 관찰을 갖'이라는 안일(安逸)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난사고의 2차 이유다. 중앙도서관의 김진호 직원은 "CCTV를 통해 얼굴을 식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설령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영

상을 보게 되더라도 그게 누군지 밝혀내는 사례는 그렇지 못한 사례에 비해 수에서 밀린다"며 CCTV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열람실을 뒤덮는 음식의 향기

마지막 다섯 번째 사항은 음식물 반입에 관련된 문제다. 우리대학 도서관은 먹을 때의 소리가 나지 않거나 음식물의 냄새가 강하지 않다면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간혹 놀라움을 넘어 신기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도 있다. 김진호 직원은 "직접 중앙도서관에서 에스프레소 기계를 가져와 커피를 내려 먹는 사람도 있다"며 "음료를 쏟아 책을 훼손(毀損)시키는 등의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자체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학생들에게 음식물 반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훼손도서 전시를 통한 경각심 촉구

중앙도서관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행사뿐만 아니라 훼손도서의 전시도 진행되고 있다. 전재빈(수학과4)군은 "도서관 교재를 빌렸는데 답이 다 적혀있어 낭패를 보았

다"고 말했다. 책에 낙서(落書)가 돼 있거나 사진첩에서 사진을 오려간 것 등이 있다. 학생들의 이런 행위 밑에는 '내가 학교에 내는 등록금이 얼마인데 이 정도쯤 못 가져가느냐?'라는 생각이 기저(基底)에 깔려있다.

이는 실제로 책의 표지만 두고 본문을 모두 빼가려다 적발된 학생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다. 그러나 소장도서들은 모두 학교의 재산이며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우리에게 그런 자산을 소중히 남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도서관에선 또 에티켓 UCC 공모전과 에티켓 준수 서약서 작성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이미 서약서는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작성했다. 2천여 명의 학생이 도서관 에티켓을 잘 지키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만으로 에티켓이 잘 지켜질 수는 없다. 결국 답은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아야 한다. 힘들다면 집주인까진 못돼도 세 들어 사는 사람정도는 되어야 한다. '아니 온 듯 다녀가세요.'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아니 온 듯' 도서관에서 조용히 지내야 하고 '아니 본 듯' 본인이 본 책들을 반납해야 한다. 어렵지 않은 곳에 해답은 존재한다.

최익래 기자 irchoi@dongguk.edu

## 동국인과 함께 하는 「희망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모집

1. 일 시 : 2010.10.10(일) 08:00

2. 장 소 : 시청 앞 서울 광장

3. 신청

- 가. 대 상 : 학생,교수,직원 등 동국인 모두
- 나. 부 문 : 하프코스,10KM 단축코스
- 다. 인 원 : 선착순 200명
- 라. 기 간 : 2010.9.1(수) ~ 9.17(금)
- 마. 접수처 : 학생서비스팀(본관 3층)

4. 기타

- 가. 제8회 하이 서울 마라톤대회 단체 출전
- 나. 대회 참가비(하프코스 : 3만원, 10KM 단축코스 : 2만원) 중 개인별 1만원씩 학교에서 지원
- 다. 단체 연습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30분 상록원 집결 후 남산 산책로 연습 (참석은 자율선택)

5. 문 의 : 학생서비스팀 02)2260~3047~8

학 생 서 비 스 팀

## 2010년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 2010년 8월30일(월) ~ 9월18일(금) (3주간)

2. 신고 대상

- 가. 일반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나. 2010년도 편입생, 입학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다. 2010년도에 전역 후 복학한 학생
-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복학과 동시 휴학자는 신고제외

3. 신고 방법 : U-drims 또는 예비군 연대본부 방문(본관 3층)신고

4. 신고 시 지참물 / 관심사항

- 가. U-drims 신고 방법
  - > 학사정보 > 병무 > 좌측상단 "예비군 자원관리" 클릭
  - >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 우측 중앙 "신청" 클릭
  - > 신청서 작성 후 필히 "저장" 클릭/확인 > 신고 완료
- 나. 예비군 연대방문 신고
  - 전역증 (군번,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등 신고서 작성 시 필요)
  - ※미등록자는 대학 예비군에 편성불가

※휴학기간 중 '10년도 지역에서 부과된 보충훈련 미필자는 학생신분 전환 후에도 보충훈련 만큼 소급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에 전입신고 시에 필히 훈련 미실시 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상담 바람.

※대학 직장 예비군에 신고기간 중 미신고 하거나 적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원훈련(2박3일 : 28시간) 또는 동미참 훈련 (36시간~20시간)을 받아야 하므로 필히 신고하여 학생 예비군으로 1일(8시간)훈련을 받아서 법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5. 기타 상세 문의 : 예비군 연대본부 ☎2260-30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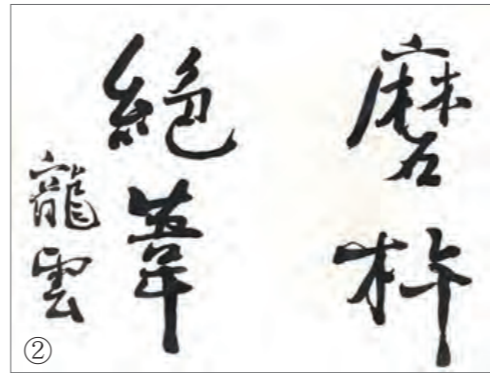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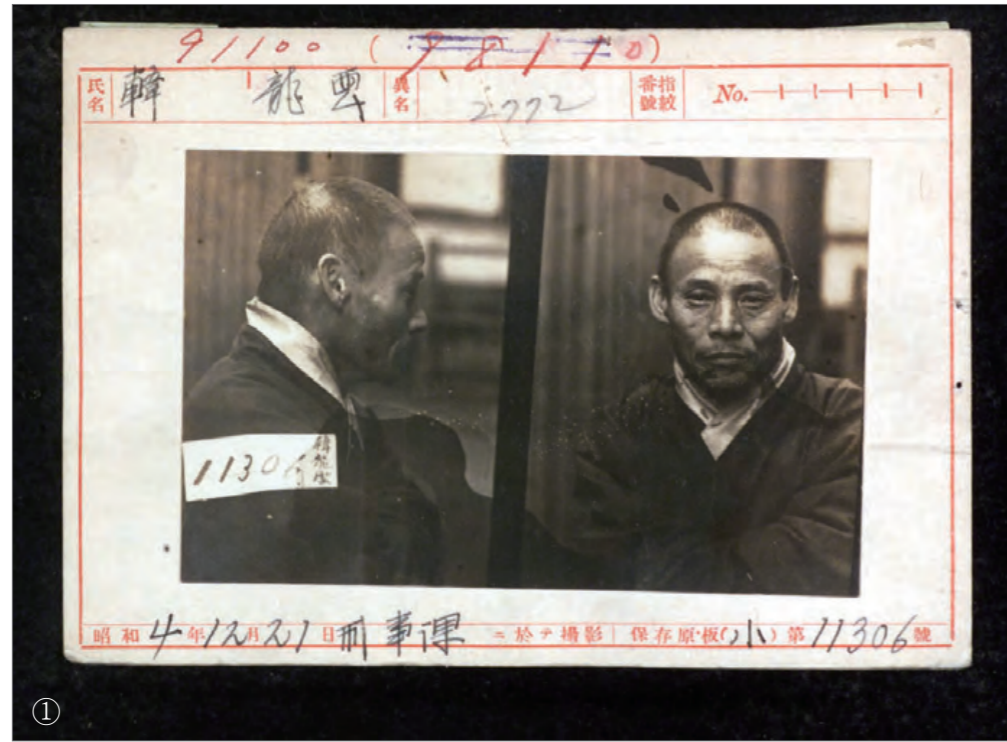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장

동국 문학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서 - ① 만해 한용운

# “만해는 근대 지성 대변하는 민족의 자존(自尊)”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 문인의 삶을 살았던 동국문학의 젖줄 만해 한용운의 삶을 조명하다

한국 근현대사 문학을 논하는데 있어 우리대학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대학의 문학전통은 매우 깊다. 해화전문학교 시절부터 만해 한용운, 서정주로 시작해 문학의 거대한 줄기를 형성한 동국 문학의 맥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호부터 총 7회에 걸쳐 우리대학의 문학전통을 살펴본다. 첫 기획은 동국문학의 젖줄로 불리는 만해 한용운의 세 가지 삶을 조명한다.



### 만해 한용운 연표 (1879-1944)

-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남
- 1905년 설악산 백담사에서 출가
- 1913년 불교개혁 주장 '조선불교유신론' 출간
- 1918년 불교잡지 '유심(惟心)' 창간
-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 일제로부터 3년형을 선고 받음
- 1926년 시집 '님의 침묵' 간행
- 1927년 신간회에 적극 참여,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을 맡음
- 1931년 불교 비밀결사 '만당(만당)' 당수추대
- 1944년 6월 29일 세상을 떠남
-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됨
- 1996년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발족

### 위클리 동아문화

정조대왕의

숨결 담긴

보물 744호

‘국화도’ 선보인다

9월의 문화재로 선정

오는 30일까지 박물관 전시



▲정조대왕어필국화도, 84.6×51.3cm, 종이에 먹 ▲전시기간: 9월1일-9월30일 ▲문의전화: 02-2260-3722



### 연재 순서

1. '님의 침묵'의 한용운
2. 질마재 신화의 서정주
3. '승무'의 동탁 조지훈
4. 목가적 서정시인 신석정
5. '낙화'의 신화 이형기
6. '농무'의 신경림
7. '태백산맥'의 조정래



①한용운이 1929년 12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을 때의 수형기록표 ②만해의 유묵, 마저절위. 절구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고, 대나무 책의 가죽끈이 끊어졌다는 고사로 쉬지 말고 노력하라는 뜻 ③만해가 항일비밀결사체인 '만당'의 당원인 박근섭에 준 친필 도자기 ④그의 저서 님의 침묵 ⑤만해가 침거하며 해방될 그날을 기다린 심우장.

다. 대다수의 지성인이 친일행보로 전향해 갔지만 그는 결코 지조를 꺾지 않았다. 이렇듯 그의 정신과 기개는 민족의 사표 이었고, 매서운 지조는 민족 지성의 표본이었다.

### 불교개혁가로서의 만해

백담사에서 스님이 된 그는 불교의 사상을 체득하고 산중불교에 매인 불교의 문제점을 파악해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즉 불교가 민족불교를 구현하면서 시대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소신에서 1913년에는 '조선불교유신론'을 발간했다. 이 유신론에서 불교의 개혁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새 불교로 나아가 것을 역설했다. 그는 산중불교, 승려중심의 불교에서 도회지 중심의 불교, 대중 중심의 불교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즉 한용운은 대중불교론(大衆佛敎論)을 주장했다. 만해의 불교개혁은 팔만대장경을 요약한 '불교대전'의 발간에서도 나온다. 3.1운동으로 옥에서 나온 후에도 불교개혁 열정은 쉬지 않았다. 그는 선 부흥을 위해 설립된 선학원(禪學院)에 거주하며 역경 단체인 법보회를 조직하였다.

만해는 불교 자주화의 일환으로 불교계 통일운동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제의 불교정책에 긴박당한 불교계를 불교자주의 무대로 끌어내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1930년대 초반 '불교'를 폐내던 '불교사'의 사장에 취임해 안이한 편집 원칙을 바꾸어 불교계 모순에 비판을 가했다.

이때부터 '불교'지는 식민지에 안주하였던 사찰 및 승려에 대한 준열한 비판을 하였다. 한용운이 30대에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하고, 50대 후반까지 불교개혁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보한 것은 일본 불교에 밀리고, 전통과 문명의 사이에서 혼미했던 한국 불교의 취약성을 극복하려 한 것이다.

### 문인으로서의 만해

한용운의 위대성은 문학에서도 뚜렷하다.

### 동국대와 한용운의 인연

불멸의 한국인, 만해 한용운은 1879년에 태어나 1944년 66세로 입적할 때까지 구도와 실천의 삶을 살았다. 그는 자유·평화·평등·생명의 존엄을 지킨 선사, 독립운동가, 시인으로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이 같은 업적을 갖고 있는 한용운은 동국대 제1회 졸업생이었다. 한용운은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교(1906)의 단기과정인 보조과 출신이다. 한용운은 1908년 봄에 일본 조동종 대학(현 고마자와 대학)으로 유학을 갔지만 6개월 만에 귀국했다.

귀국한 한용운은 1908년 12월, 원흥사(동국대 최초 학교터)에 명진총량강습소를 3개월 과정으로 개설하여 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불교근대화, 민족운동에 매진하였다.

동국대와 인연은 1918년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의 동창회인 일심회(一心會)초대회장으로 6개월간 역임함으로써 이어졌다. 3.1운동 당시에는 중앙학림의 학인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 3.1운동에 나설 것을 독려했기도 했다.

1924년에는 동국대 출신들이 주역인 조선불교청년회의 총재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1930년에는 항일비밀결사체인 만당(만당)의 당수로서 추대하였는데, 이 추대에는 중앙불전의 제1회 졸업생들의 역할이 컸다. 직후 학생들은 한용운을 학장으로 추대하였으나(1932.5), 일제는 인가를 하지 않았다. 동국대 학생들은 한용운을 정신적인 지주로 따랐다.

이처럼 한용운은 동국대 학생들의 이상과도 같은 존재였다. 한용운의 청년 승려들에서의 인기는 1932년 초, '불교'지에서 평

한 조선불교 대표 인물 선정에서 477표 중 절대 다수인 422표를 얻어 1등을 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한용운의 사상에 대해서 조지훈은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라는 고전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글에서는 조지훈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 문인으로서의 한용운 사상의 구조를 요약한다.

### 독립운동가로서의 만해

한용운의 삶은 민족운동의 최일선을 지킨 민족의 자존이었다. 그는 고향 홍성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비참함을 보았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좌시할 수 없어 의병에 참가하였다. 출가 후에도 용솨음치는 열정으로 민족운동의 대열에 뛰어 들었다.

한용운의 민족운동의 첫걸음은 임제종 운동(臨濟宗運動, 1911)의 주도로 나타났다. 임제종운동은 일본불교(조동종)가 한국불교를 일본불교로 개조함에 저항한 불교운동이다. 이 때 한용운은 전라도, 경상도 일대의 승려들을 추동하여 그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로써 한국불교가 민족불교의 자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후 한용운은 불교의 자주화를 주장하면서, 3.1운동(1919)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불교계 대표로 3.1운동 민족대표(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그는 기독교, 천도교 지도자와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한용운은 3.1운동을 성사시켰고,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을 추서하여 3.1운동의 방향을 정립했다. 그는 옥중에 수감 중에도 일제의 회유를 물리치고, 추상같은 절개를 지켰고, '조선 독립의서'를 작성하여 상해임정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게재했다.

출옥 후는 민립대학 설립운동, 신간회운동, 광주학생운동 등의 민족운동에 참여했

다가오는 가을, 격조(格調)높은 왕실의 묵향(墨香)에 잠시 취해보자.

9월의 '이달의 문화재'에서 국화도가 선정 돼 오는 30일까지 우리대학 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정조대왕어필국화도(正祖大王御筆菊花圖)'는 정조대왕이 직접 그린 수묵화로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의 일종이다.

1982년에 재일 교포가 우리대학 박물관에 기증해 그 해 보물744호로 지정된 '국화도'는 왼쪽에 치우쳐 그린 바위와 세 방향으로 나 있는 세 송이의 들국화가 그려져 있다.

꽃잎과 들꽃은 담묵(淡墨)으로 얇게 처리한 데 반하여 농묵(濃墨)으로 짙게 처리했다. 힘있게 묘사한 국화잎은 농담과 강약의 조화를 잘 이뤄 생동감을 그대로 담아냈다.

국화도는 전문화가가가 아닌 정조대왕이 그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화가와는 달리 꾸밈이나 과장이 전혀 가미되지 않아 담백하다.

또 화폭의 오른쪽에 적힌 정조대왕의 낙관(落款)은 그림의 상징성을 더한다. 낙관이란 글씨나 그림을 완성한 뒤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광배 전임연구원은 "국화가 가을의 상징인 만큼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하게 됐다"며 "매뚜기의 다리털까지 섬세하게 묘사(描寫)한 것으로 보아 정조대왕의 그림솜씨가 뛰어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정조대왕의 그림솜씨를 극찬(極讚)했다.

한편 국화도는 우리대학이 소장한 '파초도(芭蕉圖)'와 더불어 국내 현존하는 정조대왕이 남긴 몇점 남지 않은 그림이란 점에서 더욱 높게 평가된다.

우리대학 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이달의 문화재' 테마 기획을 통해 매달 박물관의 소장품 중 미공개 된 작품을 선정해 1층 상설전시실에서 특별 코너에서 전시하고 있다.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자랑스러운 동국인을 찾아 < 8 > MBC논설위원실장 황헌 동문

# “신속보도위해 모험도 불사”

MBC 논설위원실장으로 있는 황헌 동문은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등 보도국 내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수많은 특종을 잡았다. 그 중 옐친 전(前) 러시아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는 말한다. 기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남은 인생의 퍼즐을 맞춰 나가겠다는 황헌 동문을 만나 기자로서의 삶과 우리대학과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걸프전 당시 임기영 앵커와 뉴스를 진행하는 황헌 동문(위) ▲ 손정은 앵커와 함께 <뉴스와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황헌 동문(아래)

현대사회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터진다. 대중들이 이 모든 사건을 스스로 챙겨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매일 밤 텔레비전 앞에 모여 뉴스를 시청한다.

여러 종류의 뉴스들,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MBC뉴스 황헌입니다” 바로 우리대학 영문과 출신의 황헌 동문이다. 대중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그는 정론직필 기자의 길을 26년째 걸어오고 있다. 기자로서 산전수전을 경험한 황헌 동문을 만나 기자로서의 삶과 우리대학과의 추억에 대해 들어봤다.

### 다양한 경험, 특종 전문 기자

황헌 동문은 1984년 MBC에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어느 방송사를 봐도 황헌 동문만큼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 기자는 없다. 그는 다양한 경험만큼이나 수많은 특종을 잡아냈다.

그가 파리특파원으로 있을 당시 이란 밤사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피해를 재빨리 보도하기 위해 그는 다른 기자들이 비자를 받으려고 시간을 허비할 때 비자 없이 무작정 이란으로 향했다고 한다.

공황에서 그는 공항경찰에게 “지진의 심각성을 재빨리 보도하기 위해 왔다”며 “뉴스를 보고 한국에서 피해 복구를 도울 것이니 들여보내 달라”고 기지(機智)를 발휘했다. 덕분에 특종을 건진 그는 CNN보다도 먼저 이란 지진 현장의 참상(慘狀)을 보도할 수 있었다.

부서를 옮겨갈 때마다 사건이 발생해 기자로서 많은 경험을 한 황헌 동문은 “그 중에서도 구소련 군부의 탱크 앞에서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을 인터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구소련의 민주화를 위해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옐친이 군부의 탱

크에 올라가 시위를 할 때 인터뷰를 했다는 황헌 동문은 “당시 구소련의 민주화 열기를 한국에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회상(回想)했다.

### 가족 통해 맺은 동국대와의 인연

기자로서 수많은 경험을 한 황헌 동문은 모교에 관한 기억도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런 황헌 동문이 우리대학과 만나게 된 것은 가족들 덕분이었다.

그의 누나는 “동국대 영문학과 교수님들이 훌륭하다”며 “영어를 잘하는 너의 특기를 살리기에는 동국대가 좋다”고 우리대학을 추천했다.

그의 부친 역시 “역사가 깊은 동국대에 입학한 후 열심히 공부해 실력을 키우라”며 그를 응원해 줬다.

가족들의 권유로 우리대학을 선택하게 된 그는 학창시절의 여러 교수님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황헌 동문은 특히 송요인 교수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라며 “학습할 양도 많고 학점도 짜게 주시던 교수님이셨는데 열심히 공부해 학점을 잘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옛 추억을 떠올렸다.

황헌 동문은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 스킨스쿠버다이빙 동아리인 수중탐험연구회에 가입한 그는 “방학 중에는 제주도나 울릉도로 탐사를 갈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다”고 한다. 그는 또 정식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TIME 동아리에도 자주 나가 TIME지를 공부했다.

또 황헌 동문은 학교 도서관에서 “기자가 되기 위해 국어, 영어, 상식 등 언론사 입사에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며 기자를 꿈꾸는 후배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

황헌 동문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결코



로는 화려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1분 2초의 보도내용만을 보지만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며칠 밤을 새는 숨은 노력은 보지 못한다”며 일반인들은 모르는 기자만의 고충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취재를 할 때 행복하다”며 시사매거진 2580 기사를 할 때를 떠올렸다.

그 당시 “어떤 회사의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이 열악(劣惡)해 파업을 하고 있었다”며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고 월급도 안 줬는데 내가 보도한 후 직장이 정상화 됐다”고 했다. 그는 “파업이 끝난 후 그들로부터 양말 선물을 받았을 때 가슴이 뭉클 했다”고 했다. 당시를 떠올리는 그를 통해 인간 황헌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언론사 입사 위해선 다독(多讀) 필요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가슴 따뜻한 그이지만 자신을 평가할 때는 사뭇 냉정했

다. 황헌 동문은 “기자로서 나는 7-8점에 불과하다”며 “내가 좀 더 발로 뛰어서 좋은 기사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또 “이재용 아나운서를 비롯해 아나운서실에는 우리대학 출신이 꽤 있는데 보도국에는 별로 없다”며 후배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황헌 동문은 기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언론사 입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많은 상식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을 읽을 때는 책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면밀히 읽는 독서습관이 필요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인생은 노력하며 맞춰나가는 퍼즐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앞으로 기자로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남은 퍼즐을 채워가겠다”고 말한다.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남은 퍼즐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그의 가슴 따뜻한 보도를 기대해본다.

허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 프로필

△1959년 경북 출생 △1984년 MBC 입사 △1985년 동국대 영문학과 졸 △1990년 공로상 수상 △1991년 특종상 수상 △1997년 카디프대 언론학 석사 △2000년 마감뉴스 앵커 △2001년 뉴스투데이 앵커, 앵커 공로상 수상 △2003년 파리특파원 △2005년 특종상 수상 △2006년 뉴스와 경제 앵커 △2008년 보도국 문화스포츠 에디터 △2009년 보도국 뉴스데스크 담당 부국장 △2010년 논설위원 실장

▶ 3면에서 계속

정우진(20만원), 김봉선(20만원), 김윤환(20만원), 허선도(20만원), 김중만(20만원), 박경숙(20만원), 박순택(20만원), 최보식(20만원), 김희순(20만원), 이강우(20만원), 방준국(20만원), 정광교(20만원), 서정원(20만원), 문성현(10만원), 이상하(20만원), 최상은(20만원), 김동용(20만원), 김명섭(15만원), 배명렬(14만원), 류인수(12만원), 홍광표(10만원), 강태호(10만원), 정필현(10만원), 김복순(10만원), 김영훈(10만원), 이영경(10만원), 김영기(10만원), 허상현(10만원), 김상겸(10만원), 이윤호(10만원), 김경호(10만원), 손동진(10만원), 이득원(10만원), 김진자(10만원), 고동민(10만원), 함민자(10만원), 문광수(10만원), 강지금(10만원), 이상철(10만원), 현관우(10만원), 김덕희(10만원), 이귀현(10만원), 최은수(10만원), 금금숙(10만원), 유창욱(10만원), 최춘식(10만원), 김인자(10만원), 김태호(10만원), 박종현(10만원), 김중해(10만원), 김진호(10만원), 양애자(10만원), 정경화(10만원), 권은오(10만원), 배성원(10만원), 최보미(10만원), 이규준(10만원), 최태영(10만원), 이명옥(10만원), 손동학(10만원), 이종연(10만원), 김형근(10만원), 김숙희(10만원), 도연연(10만원), 백승우(10만원), 이진락(10만원), 손말란(10만원), 최희규(10만원), 주영우(10만원), 손미영(10만원), 김경분(10만원), 박종진(10만원), 최윤희(10만원), 이유기(10

만원), 최재용(10만원), 배영환(10만원), 양경승(10만원), 김필하(10만원), 강정희(10만원), 강경숙(10만원), 송명재(10만원), 박덕명(10만원), 최정희(10만원), 김중성(10만원), 김보균(10만원), 권차순(10만원), 김영선(10만원), 안영숙(10만원), 최상준(10만원), 추교훈(10만원), 유주한(10만원), 권오자(10만원), 김진구(10만원), 황준연(10만원), 이은화(10만원), 주성재(6만원), 최성훈(6만원), 김홍섭(6만원), 최덕규(6만원), 윤광태(6만원), 엄규환(6만원), 최환호(6만원), 정동현(6만원), (주)승진보현대리점(6만원), 정재훈(6만원), 김중형(6만원), 이민숙(5만원), 김국향(5만원), 고순희(5만원), 이성옥(5만원), 김영자(5만원), 이숙선(5만원), 진병길(4만원), 정학수(4만원), 박임관(4만원), 김성장(4만원), 송중욱(4만원), 홍창은(4만원), 장경순(4만원), 조정호(4만원), 조우형(4만원), 최희규(4만원), 김영희(4만원), 김병욱(4만원), 김인홍(4만원), 이미애(4만원), 한영란(4만원), 윤주호(4만원), 오일옥(4만원), 윤희수(4만원), 김현정(4만원), 김희재(4만원), 신윤섭(4만원), 임종철(4만원), 차명희(4만원), 조미숙(4만원), 최보미(4만원), 이상록(3만원), 장현수(3만원), 이은주(3만원), 손봉호(2만원), 이종연(2만원), 하동영(2만원), 신성철(2만원), 김문영(2만원), 정철(2만원), 이종연(2만원), 손정호(2만원), 이경희(2만원), 조창성(2만원), 정호근(2만원), 김학수(2만원), 김순(2만원), 이재학(2만원), 권달영(2만원), 이동욱(2만원),

황성수(2만원), 한창용(2만원), 신혜경(2만원), 김동기(2만원), 이관(2만원), 이영실(2만원), 이종현(2만원), 김진호(2만원), 박승운(2만원), 이락우(2만원), 박병국(2만원), 오세찬(2만원), 이원석(2만원), 손지숙(2만원), 최진용(2만원), 박은주(2만원), 이승철(2만원), 박정배(2만원), 박현민(2만원), 문희영(2만원), 신광택(2만원), 김중성(2만원), 김영미(2만원), 노혜식(2만원), 도영현(2만원), 방영오(2만원), 이재국(2만원), 박종건(2만원), 서성광(2만원), 윤광수(2만원), 이효철(2만원), 김영석(2만원), 김윤태(2만원), 우성열(2만원), 박지영(2만원), 김재훈(2만원), 박병찬(2만원), 류기형(2만원), 정희수(2만원), 김영성(2만원), 김수진(2만원), 김보성(2만원), 김기호(2만원), 최진수(2만원), 황지영(2만원), 김호창(2만원), 김재훈(2만원), 임도균(2만원), 정만영(2만원), 김순준(2만원), 하해운(2만원), 백광득(2만원), 한민환(2만원), 박재원(2만원), 신기학(2만원), 박기정(2만원), 김영수(2만원), 안병수(2만원), 김용기(2만원), 심진래(2만원), 최정태(2만원), 설윤희(1만원), 윤해숙(1만원), 최광임(1만원), 하민호(1만원)

### 특정목적기금

(주)선진엔지니어링(2,000만원), 정각원(1,939만8천원), 정규형(1,775만원), 박보경(1,200만원), 정성재(1,180만원), 최고위치안정책과정(1,000만원), 행정

대학원(896만5천원), 유흥중(800만원), 선재광(600만원), 방용석(580만원), 김중욱(500만원), 심산스님(500만원), 능협중앙회경주시지부(500만원), 혜정스님(500만원), 정지홍(500만원), 권철현(480만원), 남상민(400만원), 유진덕(400만원), 정희상(400만원), 허혜진(200만원), 이영옥(200만원), 김길섭(180만원), 김희준(180만원), 안중찬(180만원), 안준철(180만원), 이우현(180만원), 이동희(180만원), 윤병국(160만원), 지병철(160만원), 성순스님(100만원), 김준석(100만원), 민용기(100만원), 김준태(100만원), 정각원(100만원), 최영희(90만원), 채종주(80만원), 김광진(80만원), 이동주(80만원), 신정석(80만원), 김법진(80만원), 김형철(80만원), 박원영(80만원), 서강수(80만원), 손창수(80만원), 신화석(80만원), 이영태(80만원), 정인재(80만원), 정주화(80만원), 정호기(80만원), 주승근(80만원), 홍성우(80만원), 이상기(80만원), 김승현(80만원), 한상태(80만원), 정이안(80만원), 김홍진(80만원), 공대중(80만원), 경주정각원(66만원), 문복순(65만원), 동국대경주병원(63만3천원), 한진수(60만원), 최순열(60만원), 배충남(50만원), 임지연(50만원), 이상운(50만원), 신상국(40만원), 김문식(40만원), 이경(40만원), 이창훈(40만원), 이선민(40만원), 진월스님(40만원), 김재은(32만원), 박인환(30만원), 유영규(30만원), 이효정(30만원), 이춘형(30만원),

신기훈(25만원), 안병진(25만원), 유국현(20만원), 박선동(20만원), 김혜중(20만원), 박정국(20만원), 김복순(20만원), 이영면(20만원), 김동협(20만원), 박서진(20만원), 이권학(20만원), 박상관(20만원), 유광호(20만원), 최재진(20만원), 한정수(20만원), 강인자(20만원), 김영민(20만원), 조복현(20만원), 공석돈(20만원), 장구태(20만원), 김보현(20만원), 권영자(20만원), 전병권(20만원), 자원스님(20만원), 이광근(20만원), 이경하(20만원), (주)로즈비드(20만원), 박상서(20만원), 최진식(20만원), 김수동(20만원), 조약돌(20만원), 정승재(20만원), 홍보각(20만원), 서옥순(20만원), 이대희(20만원), 현도스님(20만원), 승주스님(20만원), 류기영(20만원), 지용규(20만원), 중무로치과(20만원), 원영주(20만원), 손명희(20만원), 하창구(20만원), 이진호(20만원), 김희준(20만원), 조원택(12만원), 김자년(12만원), 송익균(10만원), 최진식(10만원), 박윤희(10만원), 김근목(10만원), 김진환(10만원), 변민우(10만원), 양영도(10만원), 배용운(10만원), 손동진(10만원), 김경민(10만원), 장익현(10만원), 송선영(10만원), 최경원(10만원), 백승연(10만원), 알로컴(10만원), 한강식육(10만원), 양성웅(10만원), 오현욱(10만원), 김정환(10만원), 권보드래(10

만원), 박진희(10만원), 무구스님(10만원), 도현스님(10만원), 톨앤롤(10만원), 배은석(10만원), 진현성(10만원), 최진석(10만원), 감산사(10만원), 원행스님(10만원), 주앙카코리아(10만원), 정호스님(10만원), 김경봉(10만원), 최병관(10만원), 이상득(8만원), 김덕자(8만원), 김형배(8만원), 허부강(8만원), 이시영(6만원), 이원재(6만원), 구경덕(6만원), 최현익(6만원), 김윤현(6만원), 김경표(6만원), 성재용(6만원), 박상범(6만원), 위희정(6만원), 김상우(6만원), 윤정원(6만원), 김진철(6만원), 변승재(6만원), 방중혁(6만원), 최호진(6만원), 김혜정(6만원), 변형하(6만원), 공제학(6만원), 조동주(6만원), 김지우(6만원), 정은미(6만원), 김승욱(6만원), 이진욱(6만원), 법왕정사(6만원), 삼오(6만원), 국제청동문물동(6만원), 김명숙(6만원), 김현경(6만원), 조화자(6만원), 정재훈(6만원), 박귀애(5만원), 이승진(5만원), 최환호(5만원), 윤상희(5만원), 차해운(5만원), 오상현(5만원), 김규환(4만3천원), 이은주(4만원), 조희영(4만원), 김계원(4만원), 권혁배(4만원), 권영섭(4만원), 김성규(4만원), 노동영(4만원), 이현정(4만원), 임병수(4만원), 김상필(4만원), 전하철(4만원), 조성용(4만원), 대경스님(4만원), 최문규(4만원), 정안스님(4만원), 양윤정(4만원), 이재우(4만원), 박상익(4만원), 조용진(4만원), 이용수(4만원), 김희수(4만원),

▶ 7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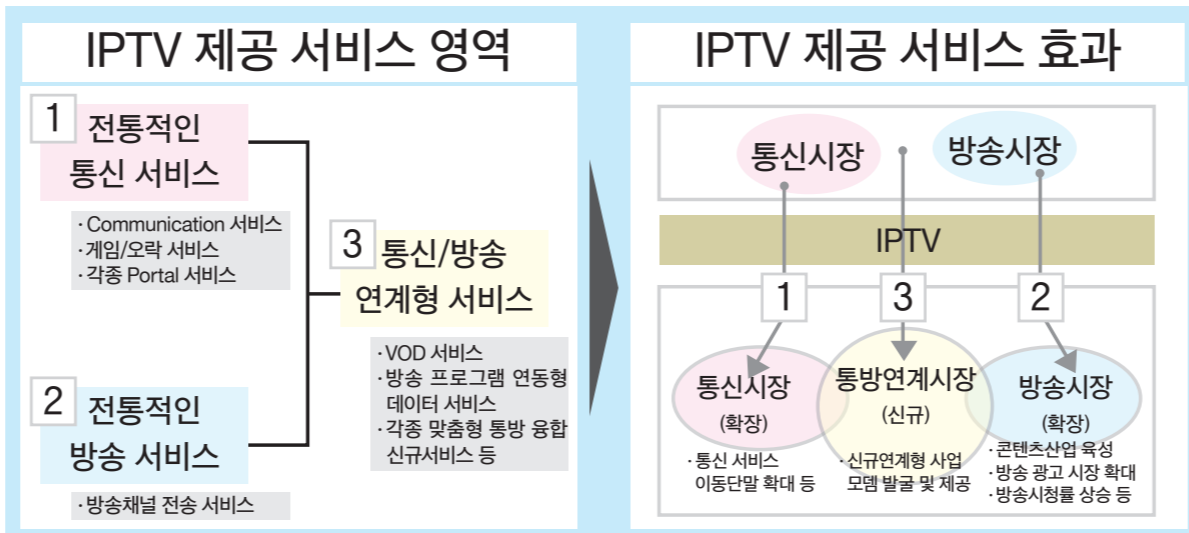
미디어 디지털융합의 첫 단계, IPTV의 현재와 미래

# IPTV, 통합방송서비스의 새로운 총아(寵兒)

구글·애플 등 스마트 TV로 진화시키려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IPTV서비스를 선보이는 통신사 직원



방통융합(融合)의 대표적 서비스인 IPTV의 가입자가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17일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이후, 이른바 QTS(하나의 셋톱박스 위상방송의 장점인 HD다채널과 IPTV의 장점인 VOD를 모두 이용) 서비스를 내세운 KT가 울며 쿡TV스카이 라이프 상품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IPTV 전체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 양방향 IPTV방송 가입자 대폭 증가 추세

QTS 서비스를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KT 계열의 전체 IPTV 실시간 및 VOD 가입자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QTS 서비스 등 전체 가입자 수는 중복 계산을 제외하고 7월말 약 400만 명에 육박(肉薄)했다. QTS를 포함한 KT의 IPTV 순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말 131만2천명에서 6월말 156만9천명, 7월말 164만 명으로 늘어났다. SK브로드밴드와 LG 유플러스 역시 지난 7월말 실시간 방송 가입자가 57만7천명과 47만7천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의 디지털융합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을 보인 IPTV는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을 줄인 말이다. 인터넷 통신 규약(Protocol) 즉 인터넷 통신언어를 이용해 텔레비전 신호인 영상과 음성, 문자 등을 멀티캐스팅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말해 초고속 광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TV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종 디지털 영상 서비스와 양방향 데이터서비스,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텔레비전이라는 단말기를 통해 제공(提供)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SD또는 HD급 화질의 지상파 프로그램의 중계를 비롯해 각종 프로그램의 실시간 방송과 TV포털이라고 하는 VOD서비스,

그리고 양방향 데이터 방송, 인터넷과 VoIP, 모바일 연계 등 QPS 서비스를 하는 Walled Garden형 가입자 기반의 인터넷 TV 방송을 말한다.

국내에 IPTV가 현재의 모습으로 시청자에서 다사서기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왜냐하면 2004년 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IPTV 서비스 도입계획이 발표된 이후, 기존 케이블 방송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등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의 제정을 통해 IPTV가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기까지는 4년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IPTV는 KT와 SK 브로드&TV, 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시작됐고, 디지털 미디어 산업융합이라는 관련업계의 단체도 발족(發足)해 IPTV 서비스의 확대보급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 홈뱅킹·주식거래 등 가능한 확장성 장점

IPTV 서비스의 특징은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또 BcN(광대역 통합망)을 기반(基盤)으로 한 VOD와 3D게임 등에 고화질 고음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수백 개의 채널을 통한 무한한 콘텐츠와 홈뱅킹과 홈쇼핑, 홈 트레이딩, 원격진료, 원격보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TV 단말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IPTV의 서비스 확장성은 앞으로 매우 밝다. 의료, 교통, 국방,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가능하며 지자체 자체 방송망으로서도 향후 각광(脚光)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케이블TV 방송업체가 IPTV의 방송진입을 반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디지털 케이블 TV와 IPTV의 기술적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케이블TV는 기본 네트워크망과 동축망

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 양 업체는 결과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재의 실정이다. 이른바 제로섬 게임, 즉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1400만을 두고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IPTV가 가입자 유지를 위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정책적 차원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구글·애플 등 스마트 TV 서비스 움직임

국내 IPTV는 현재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의 가입자 경쟁 외에도 스마트TV의 개방형 서비스와 또 콘텐츠와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단거리 발전 측면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KT가 내놓고 있는 결합 할인 서비스는 'Qook 톱같은' QTS 상품은 경쟁사와 가격차 없이 위성방송이 제공하는 실시간 채널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 IPTV방송사와 차별화를 함과 동시에 경쟁국면(局面)을 돌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KT의 이 같은 결합상품에 기반한 방송사업 기반 확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논란도 커지고 있다.

IPTV는 미래형 미디어다.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과 결합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IPTV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이른바 All IP시대를 맞게 되면, 지상파와 케이블 TV방송 그리고 인터넷 방송까지 아우르는 통합 인터넷 방송서비스의 총아로 등장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최근 구글과 애플TV로 대표되는 스마트 TV의 움직임은 오픈형 IPTV 서비스로서 향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 동 근  
연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IPTV·융합미디어 고위정책과정' 개설한  
김인재 연론정보대학원 원장

### 실무형 강의에 네트워크 형성까지



“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에 신속한 대처 필요성 느껴 ”

우리대학 연론정보대학원이 주관(主官)하는 'IPTV·융합미디어 고위정책과정'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국회의원 및 통신사 임원, 기업 대표 등이 등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로 우리대학에 IPTV교육과정을 계획하고 도입한 연론정보대학원 김인재 원장을 만나 'IPTV·융합미디어 고위정책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김인재 원장은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미디어의 출현(出現)에 관심이 많았다.

김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통신 매체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IPTV·융합미디어 고위정책과정'을 계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했다. 오늘(13일) 제 2기 과정을 시작하는 'IPTV·융합미디어 고위정책과정'은 미디어 거시(巨視)전략, 법, 제도, 경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김인재 원장은 “대학교수는 이론교육에는 적합하지만 실무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이론교육 위주의 강의가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번 과정의 강의를 IPTV와 스마트 폰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실무에 적합한 실무형 강의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현장 실무에 관한 많은 정보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교육으로 특성화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IPTV·융합미디어 고위정책과정'이 단순한 교육과정만은 아니다. 이 과정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종사자를 잇는 만남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인재 원장은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만나 토론하고 소통(疏通)할 기회를 갖는다”며 “이는 IPTV·융합미디어 관련분야의 발전과 장기적 전략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김인재 원장은 IPTV와 융합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 그는 “이 기술을 끝없는 응용분야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 산업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앞으로 IPTV 뿐 아니라 스마트 폰에까지 그 교육과정을 넓혀 융합미디어의 체계적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는 김인재 원장. IPTV와 융합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더 나은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IPTV·융합미디어 고위정책과정'은 더욱 인정받는 전문 과정으로 거듭날 것이다.

강기모 기자 km1004@dongguk.edu

## 동옥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옥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 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성장기 어린이

수험생

직장인

노약자

어약자

### 자매품

**초코동옥고**는, 동옥고를 섭취하는 분들에게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옥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옥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옥고"와 "초코동옥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천연 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 지황꿀로 만든 동옥고

동옥식품 무설 약용근자원연구소 (생명과학 명예교수 이 인 중)

문의 전화 :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 화제의 책

###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필수적인 역작

#### 역주 조선불교통사

지은 이 이능화  
옮긴 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펴낸 곳 동국대 출판부 / 8권 1질 40만 원

우리대학 출판부에서 최근 발간한 '역주 조선불교통사'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를 93년 만에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해 선보인 책으로 총 8권으로 이뤄져 있다.

역주전집은 상편(불화시처) 2권, 중편(삼보원류) 1권, 하편(이백품제) 3권, 원문 교감본 개정판 1권, 색인집 1권 등 총 8권으로 구성됐다. 상편인 불화시처는 4세기 후반부터 1천 5백 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집성(集成)했다. 또한 한국불교사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사관(史觀)을 말하고 있다.

중편인 삼보원류는 석가모니불의 본연(本緣)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 불교의 중심에 선종이 있으며 특히 임제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한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하편 이백품제는 조선 땅에서 불교와 관련된 사실들이 잇히고 있는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 쓰였다. 총 3권으로 구성된 하편 이백품제는 203개 항목의 이야기와 2편의 단편소설에 불교사상, 문화·예술 등 불교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포함(包含)하고 있다.

백과사전 등에서 하편의 이백품제를 '불



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역사 및 학술, 풍속, 제도 등 200여 항목을 간추려 장회소설(章回小說) 형식으로 엮었다'는 기존의 설명은 바로 잡아야 한다. 장회소설이란 연속 강담식(連續講談式)으로 장 또는 회로 나누어 서술한 중국의 통속 장편소설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삼국지'나 '홍루몽' 처럼 장이나 회차를 거듭하는 중국 고대 통속장편소설이 이에 해당한다. 이백품제는 각 품제별로 다양한 전거를 바탕으로 연의(演義)와 패관(判官)의 서법을 쓴 독특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선보이고 있지만, 이는 장회소설의 형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여러 사건의 이러한 기술 내용은 불교통사를 전체적으로 통독하지 못하고 하편의 마지막에 '그 나머지(餘錄)'로 수록된 '선비 우성해에게 감응한 관음보살상 이야기'

와 '괴산 성불사의 쌍장선사가 농부 이무능을 제도한 이야기'를 '종교소설 2단편'이라고 부제를 단 것을 근거로 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불교통사는 조선시대 불교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割愛)했다. 이 책은 이능화가 직접 간추린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책에 소개된 주요인물 266명 중 조선시대 인물이 93명으로 가장 많으며 불상과 탑 등 유물 213건 중 90건도 조선시대의 것이다. 또한 조선불교통사에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조선불교통사는 일본이나 중국 등 세계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를 연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된다. 이러한 조선불교통사를 완역한 역주 불교통사는 앞으로 불교학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하상원** 기자 sang1@dongguk.edu

### 이주의 책

### 불편하지만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이야기



####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지은 이 다카하시 도루  
옮긴 이 구인모  
펴낸 곳 동국대 출판부  
18,000원 / 277쪽

자신의 정체성의 근원이 한국 민족의 공동체적 심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인의 사상과 신앙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서 저술하였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불유쾌함을 떨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령 1부인 '총론'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어보라. "조선의 역사는 독립 국가의 역사로서의 가치는 없다."

"조선의 문화는 예술과 함께 자못 빈약하다 하겠다." "조선의 철학은 진보도 없고 발

전도 없이 처음부터 화석화되었다." 이러한 전제를 총론으로 삼고 각권에서는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으로 모두 열 가지의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고 있다. 그것은 각각 '사상의 고착', '사상의 종속', '형식주의', '당파심', '문약(文弱)', '심미관념의 결핍', '공사(公私)의 혼동', '관용과 위엄', '순종', '낙천성'이다. 저자는 이 중 앞의 일곱 항목은 조선인의 결함으로 지적하고, 뒤의 세 항목은 조선인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사상의 고착'과 '사상의 종속'은 조선인의 심성 중 가장 근본적인 특성으로 영원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형식주의로부터 공사의 혼동에 이르는 다섯 가지 특성은 일본의 문화적 통치가 이어지면서 식민지 교육의 감화를 받게 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자질들이다. 그리고 관용과 위엄, 순종, 낙천성이라는 세 가지 조선인의 아름다운 자질은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조선

에서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두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듣고 나면 이 책이 일본 제국주의 어용학자가 조선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식민사관을 펼치기 위해 기획된 저서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울 지도 모른다. 1921년에 간행된 '조선인'이 이후 조선총독부의 비밀조사자료인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에 실렸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이런 판단이 옳바르다는 증거로 작동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만으로 이 책을 읽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조선의 관제와 문화유산, 고서적을 연구하고 정리한 학자로서, 저자가 이 책에서 학문적인 엄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조선의 민중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카하시 도루의 민족성론이 기반하고 있는 근대적 학

### 김대열 교수의 독서산책

###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불교용어를 찾아



#### 불교어원산책 1

지은 이 이덕해  
펴낸 곳 집우재  
13,000원 / 328쪽

불광동에는 '불광동천주교회'가 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빛나는 천주교회가 아닌가? 이 말을 아는 이에게 했더니 "원효로에는 '원효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또 어느 간행물에서 "모 교회의 부흥회에 사람들이 '야단법석'이다." 라는 내용을 보았다. 만약 이들 교회에서 불교용어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 용어들을 쓸 수 있었겠는가?

요즘에는 새롭고 괴상한 용어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 그 수를 일일이 확인할 수조차 없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용어들은 글자의 부수를 나열해 쓰기까지 하는 바람에 알아보기조차 난해하다. 빨라지는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글자가 기호화 되어가는 것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져들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빨리 흘러간다고 해도 기본적인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에는 언제나 '거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 즉 갑작스런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한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말 하나라도 기본적으로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알고 사용해야 자기 인식의 범위가 정확해지고 넓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용어 중에는 불교경전으로부터 나타난 언어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이 책은 알려주고 있고, 그 본래의 뜻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말의 우수성과 그 깊이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어 언어의 순화를 가져올 것이고, 또한 불교의 참뜻까지도 알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아무리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말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과 바람이 이 책을 권유하는 이유이다. 또한 불교를 공부하려다 보면 그 용어의 난해함에 곧바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상용어 속에 담겨 있는 불교의 여러 가지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불교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불교의 사상철학까지도 이해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도 이 책을 권유하게 되었다.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고유의 정신세계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고 하겠다. **(미술학부 교수)**

지(學知)가 오늘날에도 연면히 이어져서 지금 여기의 우리 학문의 토대와 뿔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흔히들 우리 사회와 문화, 그리고 학문 속에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여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일제의 모든 통치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다카하시 도루의 민족성론에 맞서서 조선 역사와 문화의 찬란한 유산

과 조선민족성의 우월함을 역설한다고 해서 근대 이후 한국인이 경험한 식민주의의 부정적인 결과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공동체의 보편적 심성과 문화적 동일성을 표상하고 정의하는 행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그 시선을 우리들의 자신과 타자를 향한 표상행위로 돌려서 사유할 수 있을 때, 이 책을 읽는 행위는 그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허병식** 한국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 근대 한국불교 최고의 명저 『조선불교통사』 최초 완역!

2010년 9월 10일,  
「역주 조선불교통사」 전집이 드디어 출간됩니다!

1권 908쪽, 2권 684쪽  
상편 「불화시처(佛化時處)」 1, 2  
삼국시대 불교 전래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조선 불교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관통한다!

3권 904쪽  
중편 「삼보원류(三寶源流)」  
부처님의 생애와 인도의 불전 결집, 중국의 역경사, 조선 선종 계보의 흐름까지 한눈에!

4권 788쪽, 5권 792쪽, 6권 792쪽  
하편 「이백품제(二百品題)」 1, 2, 3  
사상, 문화·예술, 인물, 사적 등 불교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200여 편의 이야기로!

7권 1100쪽, 8권 200쪽  
원문개정판/총목차·색인집  
전거를 바탕으로 원문의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판 『朝鮮佛敎通史』와 전집 전체의 총목차·색인!



4+6매판 | 1~7권 고급양장본, 8권 반양장본 | 케이스 포함 | 1질 | 정가: 400,000원

이능화가 편찬하고 최남선이 교열한 『朝鮮佛敎通史』는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1916년 편찬 당시까지 한국불교사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순한문체로 저술되어 지금까지도 그 전체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역주 조선불교통사』는 2002년 8월부터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역주, 해제 작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2010년 9월에 8권의 전집으로 완역하여 출간을 이루게 되었다.

『朝鮮佛敎通史』 완역사업은 한국 불교학계와 역사학계의 화두이자 오랜 숙원이었다. 따라서 『朝鮮佛敎通史』의 완역본인 『역주 조선불교통사』를 발간한 것은 한국불교사 연구의 한 획을 긋는 일대 전변轉變이라 할 만하다.

구입문의 : 전국유명서점, 인터넷서점, 불교전문서점  
동국대학교출판부 02)2264-4705 / 4714



강 춘 애  
연극학부 교수

달하나 천강에

공연 예술 기록화

세계공연예술도서관·박물관협회(SIBMAS)는 공연예술의 기록화에 대한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연구(研究)를 목표로 1954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섹션으로 설립돼 1976년에 독자적인 기관이 됐다. 이후 2년마다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열린다. 올해는 제 28회로 뮌헨의 민속박물관에서 열렸다. SIBMAS는 공연 예술 기록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럽, 북미, 호주를 대표하는 16명의 임원을 중심으로 대학교, 부서, 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 총 31개국에서 151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SIBMAS 컨퍼런스가 2008년 8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을 때 한국은 아르코예술정보관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회원국이 됐다.

제27회 주제는 '무형유산의 과제 : 공연의 본질을 포착하기'였는데 이곳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책자로 발간(發刊)됐다. 공연예술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는 세계 전역의 공연예술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박물관에 관한 디렉터리를 비롯하여 공연예술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서적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제28회 시브마스 컨퍼런스는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를 목표로 큐레이터, 아키비스트, 도서관 사서, 공연예술관련 분야의 콜렉션, 교수들이 세계 각국에서 70여 명이 모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소장 자료의 관리 방법 및 전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인 동향에 관한 정보를 나눴다.

또 뮌헨 연극박물관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연출가전과 연극박물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가이드와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오랜 연극박물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을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 손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무대장치, 무대 배경까지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다. 세계의 연극박물관은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고, 도서관과 협력하여 공연예술 아카이브가 탄력을 받아 컬렉션을 디지털화 해가고 있다. 가상공간이 미래의 시장이듯이 애플에 관심이 있다면 세계의 다양한 공연문화가 산재해 있는 이 영역에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연극전공자들의 경우 한 극단의 공연사를 클릭한다든가, 사진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전공학생들은 공연예술박물관의 아키비스트와 상담을 하고 있다. 공연 예술 기록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사정은 어떤가. 2008년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 개관 일에 맞추어 아르코예술정보관, 국립극장 공연예술자료관, 서울연극센터 등 4개의 공연예술 매체 소장 자료의 전문기관들이 전시, 공연예술자료 관리, 표준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통합검색 프로그램 설계를 목표로 공연예술기록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국립예술자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국내는 물론 월드 와이드 네트워크를 목표로 할지는 기대해 봐야겠다.



동문칼럼

전 인 주  
경제학과 95졸  
금융결제원 총무부

금융결제원의 업무

졸업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마음의 고향인 모교에서 원고 청탁을 받고 보니 묘한 흥분이 나를 기분 좋게 한다.

금융결제원에서 직원의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동문 여러분과 후배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서비스의 핵심인 프라이인 금융공동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1986년 설립되었다. 우리 회사는 은행이 은행공동의 업무를 위해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면 은행이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각각 시스템을 구축하면 비용이나 효율이 떨어진다. 즉 은행공동의 업무를 해결 수 있는 금융공동망을 구축·운영하는 회사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결제원이 설립됐다.

설립 이후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과 지로 업무외에 CD(현금자동인출기)공동망, 타행 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자금관리 서비스)공동망, 신용 및 직불카드공동망, 지

방은행공동정보망, 주택청약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외환동시결제(CLS) 공동망 등 다양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은 물론 인터넷지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BANKPAY PG), 모바일 지급결제(Ubi), 전자어음 등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 공유분석센터(금융ISAC) 및 금융공동망 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에도 만전(萬全)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및 금융기법 등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은 어음·수표의 이미지 정보교환 추진을 비롯하여 어음 발행 정보 등록 및 조회 시스템 구축, 인터넷 지로 365일 납부 실시, 국가간 CD/ATM 공동이용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으로 뻗어나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결제원은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급결제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지로를 들 수 있다. 신문대금을 낼 때 지로장표를 은행에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은행은 수납만 하고 해당 내역은 금융결제원에서 처리하여 지로 납부금액에 대해서 은행간 대금의 정산을 하고 있으며, 업체에게는 납부금액의 입금 및 수납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뱅킹시 은행에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도 은행에서 발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인인증서 또한 금융결제원(yesign)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결제원은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내 금융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이 용고객의 편의 제고(提高)에 이바지하고 있다.



학생칼럼

우 경 식  
생명과학과 3학년

바이오시스템대학의 일산이전

지난 3월 초 오영교 총장의 모 언론사 인터뷰로 인해 바이오 시스템 대학 소속 학생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소문으로만 들던 일산 이전이 신문기사에 보도(報道)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 학생과의 공식적인 설명회, 통보도 없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산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한 것이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학사정보를 보낼 때 쉽게 보내던 이메일 통보나 문자메시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자리도 없었다.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決定)에 따라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바이오 시스템 대학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한다.

바이오 시스템 대학 학생들은 첫째로 약대를 유치하기 위하여 일산이전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내년 3월 쯤 종합강의동과 약학관이 완공

될 뿐 아무 시설도 없고, 캠퍼스 주변 역시 부동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제약회사가 주위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권 형성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교통편 역시 열악한 상태다. 또, 운영계획(복수전공, 교양, 군입대자 등)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캠퍼스에 약대 유치를 위해서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수긍 할 수 없다.

둘째로 메디클러스터의 조성(造成)을 위한 구성학과도 의문이다.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는 4개의 학과(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의생명과학과, 바이오 환경과학과)가 있는데, 메디클러스터와는 정말 연관이 적은 과들도 일산 이전을 한다는 것에 캠퍼스 조성에 구색만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메디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라도 단과대 구분 없이 의·약학

관련된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구성학과를 선정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학교-학생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다. 캠퍼스 이전이라는 중대 문제를 해당 학과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진행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동안 일산이전이라는 문제를 학생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보았을 때 학교에게 학생이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학교의 발전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서로를 위한 의사소통 없이, 준비되지 않은 일산 캠퍼스는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바이오시스템 대학을 이전한다는 통보에 앞서 한 발자국 양보하고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평



백 선 아 기자 amy@dgu.edu

동국아~ 학교가자!

## 2010 동국대학교 Homecoming Day

- 일 자 : 2010년 10월 2일(토요일)
- 행 사 : 제1부 대학(원)·학과별 만남의 장  
16:30~18:00/지정 장소
- 제2부 화합 한마당  
18:30~20:00/만해광장
- 참석대상 : 전체 동문
- 문 의 : 대외협력단 대외지원팀  
(02)2260-8991, 2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국대학교



시론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장관의 딸'과 '공정한 사회'

학기 초 답답한 수업 중 하나를 분반(分班)하게 되었다. 수강신청을 받아보니 '팀 발표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원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한 팀을 5명으로 구성하고 팀별로 최소한 2회 이상 발표 기회를 부여하며, 동시에 강의와 특강 등을 진행하기 위한 최대 인원을 40명으로 보았다. 단순히 이론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적이며 협력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수강인원이 적을수록 좋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다. 강의실 사정도 있고 재정적 추가부담도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분반. 80명 전후의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분반 기준이 문제였다. 학반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학생들의 전공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었다. 내 경우는 전공을 택했다. 통상 분반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듣기도 했다. 따라서 정치외교학 전공학생과 정치외교학 복수전공 학생을 구별하여 반을 나누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항의

성(?) 전화를 해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권을 제한받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의의제기가 맞다. 자신들이 차별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별은 불가피하다. 해당 수업의 분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문제는 기준. 분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구별, 아니 차별 하나였다. 고려할 수 있는 기준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내 경우는 그중 전공을 사용했다.

전공과목을 강의하는 입장에서 해당 전공을 우선으로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놓고 분반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당 전공을 우선으로 하는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즉, 분반 과정에서 정치외교학 전공 학생들에게 '특혜(特惠)'를 주어야 한다. 항의성 전화를 해온 학생들에게 전공 학생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했더니 모두 수긍했다. 물론 이런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분반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은 합리적인 것이다.

왜 차별해야만 하는가? '희소성(稀少性)' 때문이다.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많다면 누군가를 차별해야만 한다. 바로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혜를 받은 사람과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이다. 특히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다.

'정의(正義)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은 공정하게 차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차별받는 사람들이 억울해 하지 않는다. 당연히 받아야 할 차별이기에 동의할 수 있다. 그래야 공정(公正)한 사회다. 공정한 사회의 기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장관의 딸'로 태어난 것이 특혜의 이유라면 장관의 딸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하다. 차라리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메아리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 그린스팬 효과

▲'그린스팬 효과(Greenspan Effect)'는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까지도 움직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의 전 의장 앨런 그린스팬의 영향력(影響力)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린스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 총재라는 찬사(讚辭)를 들었다. 금융위기를 대하는 그의 능력은 가히 신적이었다. 그는 1970년대 초 이후 28년 만에 실업률을 최저로 만들었고, 29년 만에 재정 흑자 및 고성장률 이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린스팬은 정확한 판단력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경제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적절한 금리정책으로 위기(危機)를 벗어났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對策)을 내놴다.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경우'에 한해 내년 3

월 말까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집값의 50~60%까지 대출을 받게 됐다. 1가구 1주택자가 새 집을 살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處分)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주택을 담보(擔保)로 대출을 원할 때 소득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기준이 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윤종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바꾸기식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장관은 "DTI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의 증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위축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일 회의에서

는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됐다"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DTI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덧붙혔다. ▲두 달 사이에 DTI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도 되는 수단인지에 대한 윤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정부의 재정과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윤 장관의 잦은 입장 변화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毀損)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윤 장관이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가 돼야 한다. 즉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한 판단력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린스팬이라는 존재가 필요할 때다.

### 사설

### 사범대 · CPA 잇따른 낭보, 합심의 계기 삼아야

우리대학이 각종 평가와 고시에서 우수(優秀)한 성적을 내고 있다. 먼저 사범대학은 지난 달 27일 발표된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에 앞서 사범대학은 지난 5월 교사 임용비율이 31.2%로 전국 사립대학 사범대 중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우리대학은 지난 2일 발표된 공인회계사시험(CPA)에서 총 36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最高)성적이다.

이번 우수한 성적은 모든 동국인들이 합심(合心)해 이뤄낸 결과라 더욱 뜻 깊다. 또 이번 성적은 하루아침에 이뤄낸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범대학은 임용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노력(努力)을 아끼지 않았다. 또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회계학과는 회계고시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등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단과대학과 해당학과와의 이러한 노력은 칭찬(稱讚)받아야 한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개인의 목표를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학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동국 구성원들은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성적이 일시적인 성과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성적에 만족하지 말고 대학 측은 대학 경쟁력을 높여나가기에 더욱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성원들도 대학 측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우리대학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번 성과가 우리대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경주병원, 건학이념 되돌아봐야

우리대학 경주병원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로 일하던 용모씨(58)가 지난 달 16일 집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용씨는 청소용역업체 소장의 상남, 부당한 업무배치, 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遺書)를 남기고 자살했다. 최근 계속해서 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러한 일이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대학 병원은 용씨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책임(責任)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 직원이나 용역업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다. 더욱이 병원은 죽은 이에 대한 미안함과 유족에 대한 위로(慰勞)조차 표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非難)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태도는 과격직 용역업체들의 비리와 부조리한 관행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측이 기본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대학은 '자비(慈悲)'와 '지혜(知慧)'의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또 경주병원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1년 개원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지금부터 2천여년 전 이미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종립대학에서 벌어지는 이와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유훈우, 편집장 최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불기 2554 (2010년) 2학기 정각원 '불교 대강좌'				
9월	4일(26)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기도공덕	이명태	승남대 불학과 영예교수
	11(28.4)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기도공덕2	이명태	
	18(29.1)	개원3주년 기념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25(29.8)	불교의 문화유산	김종규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10월	2(29.5)	나의 불교신앙이야기	전원주	델린트
	9(29.2)	화엄의 세계1	해주스님	불교대학 교수
	16(29.9)	화엄의 세계2	"	"
	23(30.6)	화엄의 세계3	"	"
	30(30.3)	추계성지순례	"	"
11월	6(29.10.1)	수계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3(29.8)	불교의 수행법-간화선1	종호스님	불교대학 교수
	20(29.15)	불교의 수행법-간화선2	"	"
	27(29.22)	한국 불교-원효상사	김상현	문화관광 교수
12월	4(29.29)	불교의 가족관(부모-자녀)	백경민	사범교육대학 교수
	11(29.11.6)	불교와 상생(정체)	나경원	한서문화연구원
	18(29.13)	불교의 부분관	김일영	중앙승가대 교수
	25(29.20)	승년법화-문화공연	이홍이	정신문화연구원 단장
2011년 1월	1(29.27)	유회 (신정)	"	"
	8(29.12.5)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5(29.12)	불교음악의 이해	이미향	일본음악대학 연구원
	22(29.19)	한국의 전통종교	이경우	서울고교연구원
	29(29.26)	불교와 경영	김윤규	전 현대인사 사장
2월	5(29.1.3)	유회 (상연회)	"	"
	12(29.10)	생활법회	법타스님	정각원장
	19(29.17)	불교의 수행법-절	박종민	불교학 대학원
	26(29.24)	불교의 사회경제	박경준	불교대학 교수

불기 2554(2010년) 9월 재학생 수요일 불교대강좌 일정보

■ 시 간: 학기중 매주 5시 30분~7시(00분)(1시간 30분)  
- 30분: 정신집중, 호출명상, 참선, 요가, 명불(명탁배우기) 등  
- 60분: 불교대강좌

■ 장 소: 정각원 법당

월	일	강좌주제	강·법사	비고
9월	8	즐거움 대학 생활	법타스님	정각원장
	15	창조적인 삶의 주인공	김태영법사	문서수법회 법사
	29	Century Western Civilization	무심스님 (미국인스님)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예일대 졸업)

※ 법회 일정과 강·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为中国圈学生实施的中国語法会  
“认识佛教是最幸福的事”

◎ 时间: 9月28日 下午5时~6时30分  
◎ 场所: 正觉院佛堂(法堂)  
◎ 法师: 依思法师(首尔佛光山寺住持)  
◎ 主题: 幸福人生

※ 法会后提供晚餐

결계 신청 및 포살 참여 안내

※ 스님은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람

대한불교 조계종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에 의거, 대중 결계와 포살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교에 재학중인 스님들은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 결계 신청

1. 접수 기간: 2010. 9.01(수) ~ 2010. 9. 10(금) 17:00까지
2. 접수 장소: 정각원 사무실
3. 접수 대상: 2010. 2학기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

※ 대상자 예시: 2010.2학기 위촉 강사 스님, 대학(원)재학 스님  
※ 현재 학적 상태가 휴학 또는 수료자의 경우도 정각원사무실 신청가능

■ 포살 참여

1. 포살 일시: 2010. 9. 16(목) 오후 5시 ~
2. 포살 장소: 정각원 법당

■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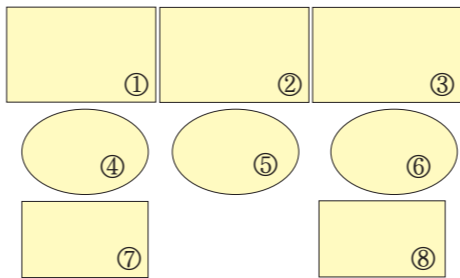
1.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구(尼)계 수지 불가, 각급 승가고시 응시 불가, 법계 풍수 불가.
2. 기타 문의 사항은 정각원 사무실(☎2260-3016)로 문의 바랍니다.

● ● ● 금주의 식단 ● ● ●	
상	월(9/13) 탕수육(2200)/모듬가스(3000)/푸삼불고기(2200)/참치전골(2500)
화	월(9/14) 제육순대볶음(2500)/ 치킨가스(2500)/ 김치볶음밥(2200)/ 독배기불고기(3000)
수	수(9/15) 모듬장조림(2500)/ 스파게티(2500)/ 치킨굴소스덮밥(2200)/ 육개장(2500)
목	목(9/16) 참치우거지저지(2200)/ 상목원정식(3000)/ 산채비빔밥(2200)/ 갈비전골(3000)
금	금(9/17) 소세지두루치기(2200)/ 돈가스(2500)/ 잡채밥(2200)/ 된장찌개(2500)
토	월(9/13) 갈비경단(2200)/ 돈가스(2500)/ 제육비빔밥(2200)/ 사브갈국수(2500)
화	화(9/14) 오징어볶음(2200)/ 치즈돈가스(3000)/ 참치김치볶음밥(2200)/ 된장찌개(2500)
수	수(9/15) 후르츠탕수육(2200)/ 양정식(3000)/ 닭갈비덮밥(2200)/ 영양갈비탕(3000)
목	목(9/16) 소세지두루치기(2200)/ 치킨가스(2500)/ 오삼불고기덮밥(2200)/ 김치찌개(2500)
금	금(9/17) 순대떡볶음(2200)/ 피자돈가스(3000)/ 치킨굴소스덮밥(2200)/ 버섯전골(2500)
토	월(9/13) 치킨굴소스덮밥(2200)/ 불돈가스(2800)/ 오삼불고기덮밥(2200)
화	화(9/14) 유산술덮밥(2200)/ 고구마돈가스(3000)/ 불고기생채비빔밥(2200)
수	수(9/15) 쇠고기숙주덮밥(2200)/ 돈가스(2500)/ 고추잡채덮밥(2200)
목	목(9/16) 짬뽕덮밥(2200)/ 치킨가스(2500)/ 닭고기비빔밥(2200)
금	금(9/17) 돈삼겉두루치기(2200)/ 피자돈가스(3000)/ 치즈카레볶음밥(2200)
토	월(9/13) 제육떡볶음(2200)/ 고구마돈가스(3000)/ 날치알김치비빔밥(2200)
화	화(9/14) 해물덮밥(2200)/ 산나물고추장술밥(2500)/ 치킨볶음밥(2000)
수	수(9/15) 삼겹살채비빔밥(2200)/ 새우가스(3000)/ 쇠고기당면덮밥(2200)
목	목(9/16) 닭갈비덮밥(2200)/ 낙지돌솥밥(2800)/ 치즈카레볶음밥(2200)
금	금(9/17) 불고기생채비빔밥(2200)/ 해물된장찌개(2800)/ 고추잡채덮밥(2200)

## 동국대학교 정각원 (東國大學校 正覺院)

#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대학별 학식 순례

각 대학에는 학식이 있다. 학생식당을 일컫는 학식은 학생들의 빈 호주머니를 잘 알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의 구미에 맞게 조리된 학식. 우리는 서울 시내 대학 중 우리대학 상록원을 포함해 숙명여대와 성균관대, 홍익대, 고려대의 학생식당을 찾아 대학별 학식의 맛과 특징을 살펴 봤다. 어느 대학 학생식당이 맛있는지, 그리고 어느 학생식당이 더 편리하고 깔끔한지 학생식당의 세계를 둘러 보자.



① 기호에 맞는 메뉴를 골라 계산 중인 고려대 학생들 ② 활기찬 우리대학 상록원의 모습 ③ 숙명여대 미소찬의 화사한 내부전경 ④ 성균관대 금잔디의 볶음면 ⑤ 맛과 양을 모두 충족시키는 홍익대 홍's아지트의 돈까스 세트 ⑥ 우리대학 상록원의 양식 ⑦ 숙명여대 미소찬의 정갈한 한식메뉴 ⑧ 인기만점인 성균관대 금잔디의 카레 돈까스



찾아라! 별별 학생식당. 주린 배와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은? 뭐니 뭐니해도 학생식당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상록원을 필두(筆頭)로 아리수, 그루터기에서 매일 생활에 지친 허기를 채우고 있는 동국인들! 그렇다면 우리 주변 대학들의 학생식당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기자와 함께 새롭달콤 맛있는 캠퍼스를 찾아 떠나보자.

## 여인네들의 화사한 미소 같은 밥상 숙명여대 미소찬



화사한 꽃밭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면? 그곳이 바로 아리다운 숙명여대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미소찬'이다. 언뜻 보면 백화점의 푸드코트와 외 있는 것처럼 화사하고 깔끔한 내부 전경(全景)이 인상적이다. 지하에 있거나 효과적인 공간 활용으로 넓은 창을 통해 오후의 햇살이 환하게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덕분에 미소찬은 학생들의 허기와 피로를 한 번에 풀어주는 가장 멋진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여학생들을 배려(配慮)한 맛있는 메뉴마다 칼로리가 기입되어 있는 것은 기본. 500원으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다.

굳이 샐러드를 따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평소 애용 브로콜리나 오이 같은 생식 반찬이 자주 나오니 다이어트 중인 학생에게 딱이다. 미소찬을 '점심시간을 함께하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소개한 안다영(정치외교학과 09) 학생은 배식 때 마다 배식담당 아주머니들이 건네주시는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가 특히 좋단다. 식사를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미소찬에서는 걱정 마시라. 여학생 특유의 새침함 때문인지 '나 홀로 식사족'이 대다수라 혼자 하는 식사도 전혀 쑥스럽지 않다.

## 사계절 늘 푸른 입맛을 돋우는 우리대학 상록원



남산 산책로의 초입.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새어나온다면 주위를 둘러보시라. 근처에 우리대학 학생식당인 '상록원'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록원은 다른 대학의 학생식당과는 달리 학생식당과 외부업체의 스낵코너가 한 자리에 있어 메뉴 선택이 더욱 다채(多彩)롭다. 상록원 건물 안에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그리고 버거킹, 파리바게뜨, 롤앤롤과 더불어 각종 편의 시설이 모두 모여 있는 것. 서로 다른 곳의 메뉴를 골라든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으니 각양각색(各樣各色)인 입맛이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식당 한 쪽 면에는 거대한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어 혼자 하는 식사도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식당 2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남산과 서울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식사시간을 살짝 비켜 가면 한산한 분위기에 서 멋진 풍경을 보며 식사시간을 보낼 수 있다.

## 황금 잔디밭에서의 식사 성균관대 금잔디



창 밖으로 펼쳐지는 눈부신 황금 잔디밭. 성균관대학교 학생식당 '금잔디'에서는 식사와 동시에 봄날의 피크닉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식당이 있는 학생회관 건물 바로 앞에 펼쳐진 잔디광장 덕분이다. 눈부신 햇빛에 빛을 발하는 푸른 잔디를 보면 안 그래도 꿀맛인 식사 기쁨이 두 배가 된다. 활기(活氣)찬 동시에 정돈(整頓)된 모습을 보여주는 성균관대 금잔디. 역대(歷代) '오늘의 메뉴' 중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는 카레 돈까스는 까다롭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준표도 한 번만 먹어 보면 다시는 잊지 못할 맛이라고. 학교에 나오는 날은 반드시 금잔디에서 점심을 해결한다는 황정우(법학00) 학생도 카레 돈까스라면 사족(蛇足)을 못쓴다. 카레 돈까스 외에 금잔디만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무엇이냐는 물음에 황군은 "무엇보다 푸짐한 양의 식사가 신속(迅速)하게

나오는 것이 금잔디의 매력(魅力)이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 만화 주인공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홍익대 홍's 아지트



홍's 아지트라는 익살스러운 이름. 입구에서부터 홍익대학교 학생식당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高調)시킨다. 식당 내부의 분위기도 아지트다운 아늑함이 느껴진다. 다소 어두운 분위기 덕에 테이블 아래에서 금방이라도 만화 속 주인공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 홍's 아지트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바로 계절에 따라 그에 딱 알맞은 메뉴가 새로 출시되는 것. 철마다 새로운 메뉴가 개발(開發)되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의 식당 이용률이 눈에 띄게 는단다. 오히원(회화06) 학생의 생생한 증언(證言)에 따르면 주(主) 메뉴에 버금갈 정도로 풍부(豐富)하게 나오는 사이드 메뉴 또한 일품이란다. 예를 들어 돈까스 세트를 주문하면 함께 나오는 볶음밥과 군만두가 양과 질에서 주메뉴인 돈까스를 압도한다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홍's 아지트가 있는 건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식사 후에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식당 근처에 놓인 벤치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운다.

## 입맛대로 내 맘대로 짜는 메뉴 고려대 학생식당



학생회관 1층에 자리 잡은 고려대학교의 학생식당. 다른 대학의 학생식당과 가장 차별화(差別化)된 모습을 보여준다. 학생회관 1층에 자리 잡은 고려대학교의 학생식당. 다른 대학의 학생식당과 가장 차별화(差別化)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 맘대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배식 시스템이다. 김치와 단무지 같은 기본적인(基本的)인 밑반찬에서부터 국과 찌개, 그리고 닭강정과 탕수육 등의 푸짐한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1인분씩 정성스레 담아 일렬(一列)로 길게 늘어선 메뉴는 보통 12개에서 13개 정도. 반찬 뿐만 아니라 바나나와 오렌지 같은 디저트 또한 준비완료다. 넓직한 쟁반에 기호에 맞는 반찬을 골라 담아 계산(計算)은 배식대 맨 끝에 있는 카운터에서 한 번에 한다. 이러한 독창적(獨創的)인 배식 시스템은 현재 고려대의 학생식당을 운영(運營)하고 있는 한 외부 업체에서 처음으로 고안(考案)해 낸 방법이라고. 아쉽게도 부족한 양을 채우는 '조금만 더 주세요' 식(式)의 애교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메뉴로 조합할 수 있으니 잔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고려대 학생들의 식단을 책임(責任)지고 있는 윤혜진 영양사는 "식성이 좋은 학생 같은 경우 그날의 반찬을 모두 선택해 두 개의 쟁반에 담아가는 일도 있다"며 재밌는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했다. 글·사진=김보혜 기자 boo@dongguk.edu